



제5회 서울도시농업박람회 국제컨퍼런스

The 5th Seoul Urban Agriculture EXPO
International Conference 2016

콩세알 이야기 | 라이프스타일의 변화로 함께 살아남기
Three Beans Story | Surviving Together, change your Lifestyle

기간 : 2016년 5월 19-22일

장소 : 서울어린이대공원

주최 : 서울특별시, 경향신문사

주관 : (재)서울그린트러스트



서울특별시

경향신문



제5회 서울도시농업박람회 국제컨퍼런스

The 5th Seoul Urban Agriculture EXPO
International Conference 2016

콩세알 이야기 | 라이프스타일의 변화로 함께 살아남기
Three Beans Story | Surviving Together, change your Lifestyle

유엔이 지정한 콩의 해를 맞아 이번 도시농업국제컨퍼런스의 주제를 콩세알을 심는 농부의 마음으로 정했습니다. “한알은 새를 위해, 한알은 벌레를 위해, 한알은 사람을 위해” 심은 세알의 콩은 자연과 사람의 공존을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생존을 위한 도시농업, 함께 살아가기 위한 도시농업 그리고 라이프스타일로서의 도시농업, 이 세 가지 측면의 도시농업을 통해 도시농부의 삶의 태도를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For the “International Year of Pulses” designated by United Nations, the theme of this year’s International Urban Agriculture Conference has been set as the mind of a farmer that planted three beans at a time. Three beans - one for the birds, one for the worms, one for the people- symbolically represents the coexistence of nature and humans. This conference is to discuss about the attitude of the urban farmer’s life from three perspectives - urban agriculture for survival, urban agriculture for coexistence, and urban agriculture and a lifestyle.

기간 : 2016년 5월 19-22일

장소 : 서울어린이대공원

주최 : 서울특별시, 경향신문사

주관 : (재)서울그린트러스트

Program

※아래 내용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콩세알 이야기 | 라이프스타일의 변화로 함께 살아남기 Three Beans Story | Surviving Together, change your Lifestyle

유엔이 지정한 콩의 해를 맞아 이번 도시농업국제컨퍼런스의 주제를 콩세알을 심는 농부의 마음으로 정했습니다. “한알은 새를 위해, 한알은 벌레를 위해, 한알은 사람을 위해” 심은 세알의 콩은 자연과 사람의 공존을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생존을 위한 도시농업, 함께 살아가기 위한 도시농업 그리고 라이프스타일로서의 도시농업, 이 세 가지 측면의 도시농업을 통해 도시농부의 삶의 태도를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친환경 컨퍼런스를 위한 원칙

1. 현수막의 최소화 : 재사용이 힘든 현수막을 최소화합니다.
2. 일회용도시락 최소화 : 음식물과 일회용 용기가 버려지는 것을 최소화합니다.
3. 텀블러 사용 권장 : 컨퍼런스 당일 텀블러를 가져오시면 커피를 제공합니다.
일회용컵 사용시 환경부담금을 받습니다.

5/19 (목)	개막식 및 세계도시농부회담
14:30 - 15:30	서울도시농업박람회 개막식 @서울어린이대공원 열린무대
18:30 - 21:00	세계도시농부회담 참석 : 한국, 일본, 대만, 싱가포르, 프랑스, 중국(홍콩), 호주, 미국, 독일, 이탈리아 국내외 발표자 및 국내 도시농업 관계자

5/20 (금)	서울의 도시농업 현장답사		
구분	코스 A (대중교통)	코스 B (버스)	코스 C (버스)
주제	도심형 도시농업 현장	역사적 도시농업 현장	도시 농업의 개척자
진행자	육진주	이강오	이창우
09:00 -10:00	중구 - 유네스코회관 옥상정원 (집결지 미정)	광진구 - 어린이대공원 어린이텃밭	
10:00 -12:00	마포구 - 석유비축기지 비밀기지	노원구 - 먹골배농장	강동구 - 공동체텃밭
점심	중식 : 도시락 제공		
13:00 -15:00	영등포구 - 국회텃밭	노원구 - 한신에코팜 도봉구 - 무수골텃밭	서초구 - 농업기술센터 서초구 - 대원농장
15:00 -17:00	용산구 노들섬 노들텃밭		

5/21 (토)	컨퍼런스 (서울어린이대공원 야외공연장-숲속의 무대)		
09:30-10:00	현장등록		
10:00-10:15	축하공연		
10:15-10:30	축사 이종석 / 서울시 도시농업위원장		
10:30-12:30 세션1 – 살아남기	진행자 : 안철환 지속가능, 종다양성, 토종종자, 먹거리, 일자리, 경제	독일	마르코 클라우젠 베를린 프린체신가르텐과 마을학교
		일본	토시아 코타니 일본의 재해 피해를 줄이기 위한 도시농지의 활용
		이탈리아	프란체스코 팩신 허니 팩토리 : 도시양봉을 위한 마이크로 아키텍처
		한국	안완식 한국의 도시농업과 토종종자
점심	12:30-13:30	※도시락을 기본제공에서 제외하여 일회용품 사용을 최소화하고, 참가비는 반으로 줄였습니다.	
13:30-15:30 세션2 – 함께	진행자 : 유은하 공동체, 어린이, 사회적 약자, 교류와 연대	미국	사라 앱스테인 브루클린 식물원의 어린이 정원 프로그램
		프랑스	마리 디하에네 파리 도시농업운동의 대두
		대만	첸 하이 대만 도시농업 맥락 속 게릴라 정신
		한국	노순호 도시농업과 발달장애인의 사회소통
휴식	15:30-15:50	※텀블러를 가져오시면 커피를 제공합니다. 일회용컵 사용시 환경부담금이 있습니다.	
15:50-17:50 세션3 – 라이프스타일	진행자 : 이보은 문화, 웰빙, 변화, 일상	싱가폴	비훈 로 도시농부 – 모두가 농사 지을 권리
		중국(홍콩)	앤드류 추이 도시농업 – 지속가능한 라이프스타일로 변형하는 도시
		호주	그린 딘 호주의 도시농업
		한국	박정자 & 하미현 농부와 요리사가 만나는 장터
17:50-18:00	마무리 – 김진덕 / 전국도시농업시민협의회 대표		
5/22 (일)	컨퍼런스 랩업 및 도시농부의 날		
10:00-11:30	컨퍼런스 랩업 함께 만드는 도시농부 10계명 참가 : 국내외발제자 및 도시농업관계자		
11:30-12:00	도시농부의 날 퍼포먼스 @열린무대		

Program

※Programs may be subject to change.

Three Beans Story : Surviving Together, change your Lifestyle

United Nations proclaims 2016 as “International Year of Pulses”. From long ago, Korea's farmers planted the three beans at a time. One for the birds, One for the worms, One for the people. Three beans story shows the farmer's attitude on coexistence of nature and human. The theme of this conference is <Surviving Together, change your Lifestyle>. This conference will take about the attitude of the farmer's life in the city from three perspectives composed of Urban agriculture for survival, living together and changing lifestyle.

Principles for eco-conference

- 1. Minimize banners
- 2. Minimize disposable lunch container
- 3. Recommended using tumbler : Bring own tumbler.

5/19 (thu)	Opening ceremony & Welcome Dinner
14:30 - 15:30	The opening ceremony @Seoul Children's Grand Park Yeollin Stage The 5th Seoul Urban Agriculture EXPO 2016
18:30 - 21:00	Welcome Dinner @Seoul Children's Grand Park Kkummaru 3F cafe Participants : World urban farmers from 10 countries

5/20 (fri)	Field Trip		
09:00-17:00	Participants : Around 20 people per course (Including speakers)		
Course	Course A (Public transportation)	Course B (Tour Bus)	Course C (Tour Bus)
Theme	Downtown urban farm	Historical urban farm	Frontier of urban farming
09:00 - 10:00	UNESCO Hall - rooftop garden	Seoul Children's Grand Park, Children's garden	
10:00 - 12:00	Mapo Oil reserve base	Meokgolbae farm	Gangdong-Gu - Community gardens
12:00 - 13:00	Lunch (Box lunch provided)		
13:00 - 15:00	National assembly farm	Hanshin Eco Farm & Musugol Farm	Agricultural Technology Center & Daewon Farm
15:00 - 17:00	Nodeul Island nodule farm		



축사

Congratulatory
Message

5/21 (sat)	Conference @Seoul Children's Grand Park Concert Hall		
09:30-10:00	On-site registration		
10:00-10:15	Celebration		
10:15-10:30	Opening speech Lee Jong-seok / Chairperman of Seoul Urban agriculture committee		
10:30-12:30 Session 1 - Surviving	Moderator: Ahn cheol-hwan Keywords: sustainability, biodiversity, seeds, food, jobs, economy	Germany	Marco Clausen Prinzessinnengarten
		Japan	Toshiya Kotani : Utilizing urban farmlands for purpose of reducing damage from disasters in Japan
		Italy	Francesco Faccin : Honey Factory - Microarchitecture for Urbanbeekeeping
		Korea	Ahn wan-sik : Korea's urban agriculture and native seeds
12:30-13:30	Lunch (Box lunch provided)		
13:30-15:30 Session 2 - Together	Moderator: Yu Eun-ha Keywords: Community, children, socially disadvantaged, networking	USA	Sara Epstein : Children's Garden Programs at Brooklyn Botanic Garden
		France	Marie Dehaene : The rise of the Paris urban agriculture movement
		Taiwan	Chen Hai : Guerrilla Spirit in Taiwan Urban Farming Context
		Korea	Noh Soon-ho Social communication of urban agriculture and developmental disabilities
15:30-15:50	Coffee Break (20 min.)	※ Bring your tumbler and get free coffee. If using disposable cups, you have to pay environmental fees.	
15:50-17:50 Session 3 - Lifestyle	Moderator: Lee bo-eun Keywords: culture, wellbeing, change, daily life	Singapore	Bjorn Low : Citizen Farmer - Empowering everyone to farm
		China (Hong Kong)	Andrew Tsui Ka : Urban Farming 3.0 - Transforming cities with sustainable lifestyle
		Australia	Green Dean Urban Agriculture in Australia
		Korea	Park Jung-ja & Ha Mi-hyun Marketplace where Farmers and Chefs Meet
17:50-18:00	Closing speech Kim jin-deok / Chairman of Korea Urban Agriculture Association		

5/22 (sun)	2016 World Urban Farmers Day & Conference Wrap-Up		
10:00-11:30	Conference Wrap-Up @Seoul Children's Grand Park Kkummaru 1F meeting room Theme : Creating Urban farmers Ten Commandments Participants : World urban farmers from 10 countries		
11:30-12:00	2016 World Urban Farmers Day Performance @Seoul Children's Grand Park - Yeollin Stage		

안녕하십니까?

제5회 도시농업박람회와 국제 컨퍼런스를 찾아주신 시민, 시민단체 관계자, 멀리에서 오신 해외 연사자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서울시는 시민과 함께 도시농업을 통해 서울을 생명의 도시로 되살리고 시민의 삶을 풍요롭게 하고자 많은 노력을 해왔습니다.

시민들은 스스로 농장에서, 옥상에서, 베란다에서 다양한 형태로 도시농업을 실천하고 도시농업을 통해 서로 소통하고 공유하고 있습니다. 도시농업은 안전한 먹거리를 생산한다는 것 이외에도 배움, 일, 놀이가 한꺼번에 이루어지는 활동으로, 그 속에서 공동체 의식이 싹트고 삭막한 도시에 숨결을 불어넣고 있습니다.

오늘 2016년 서울도시농업박람회-국제컨퍼런스는 “도시농업과 공존”이라는 주제로 한국을 포함해 일본, 중국(홍콩), 미국, 독일, 프랑스 등 10개국의 발표자가 함께합니다.

서울과 대한민국 주요 도시에서 일어나고 있는 다양한 도시농업사례를 공유하고, 도시농업이 활성화된 세계 여러 도시의 석학과 실천가들이 도시농업을 통한 지속가능한 도시로서의 혁신을 논의하는 장입니다. 오늘 이 자리가 세계의 도시농부들과 석학, 전문가들이 서로 네트워킹하는 기반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국제컨퍼런스를 위하여 수고하신 서울시의 모든 도시농업인과 단체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서울시도 시민들이 함께 텃밭을 가꾸고 행복을 키우는 공동체도시, 생명의 도시 서울을 만들어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6. 5. 서울특별시시장 박 원 순

Hello, and welcome.

I deeply appreciate all the citizens, authorities of community organizations and foreign operators from overseas. The Seoul Metropolitan Government has been putting great efforts to revive Seoul as the city of life and enrich the lives of citizens through urban agriculture with our citizens.

Citizens practice urban agriculture in various ways, from their own farm to their roof gardens or balconies, and communicate and share with each other through urban agriculture. In addition to producing safe food, urban agriculture is the activity where learning, work and play happen at once, and is bringing liveliness to the dreary city in the midst of arising community spirit.

At this year's Seoul Urban Agriculture EXPO 2016 – International Conference, speakers from 10 different countries, including Korea, Japan, China (Hong Kong), U.S., Germany and France, will be joining together for the theme of “Urban agriculture and coexistence”.

It is the place to share various urban agriculture cases in Seoul and major cities of Korea, and also the place for scholars and practitioners around the world where urban agriculture is active to discuss the innovation as a sustainable city through urban agriculture.

I hope this event will serve as the foundation of networking for all urban farmers, scholars and experts around the world.

I would like to express my gratitude for all urban farmers and organizations of Seoul that worked very hard for the International Conference, and the city of Seoul will work harder to create Seoul into the city of community, the city of life where citizens cultivate kitchen gardens and grow happiness together.

Thank you.

2016.5.

Park, Won-soon

Mayor of Seoul





개회사

Opening Address

오늘날 세계의 여러 도시에서 농사를 짓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농업이란 시골에서 농부들이 생산을 목적으로 하는 일이라 생각하였지만 요즘 도시는 베란다, 옥상, 자투리땅, 주말농장, 심지어 공원에서도 장소에 구애됨이 없이 농사를 짓는 도시농부가 생겨나고 있습니다.

도시농업이 유행처럼 우리들 삶 깊숙한 곳으로 빠져들고 있는데요. 도시농업이 가진 매력은 무엇일까요?

도시농업은 시민들이 직접 건강한 먹거리를 생산하고 가족과 이웃이 함께 텃밭을 가꾸면서 대화를 통해 가족애를 느끼고 각박한 도시민의 삶에 이웃과 소통하며, 건전한 지역 공동체를 만들어나갈 수 있습니다.

또한, 도시농업은 농촌의 문화적 감성을 더해 농촌과 도시가 공존하도록 하여 도시에서 농촌의 대안적 삶과 생명이 살아 있는 지속가능한 사회를 꿈꾸게 해줍니다.

이제 도시농업은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인 흐름입니다.

2016년 서울도시농업박람회-국제컨퍼런스를 통해 일본, 중국(홍콩), 대만, 싱가포르, 프랑스, 호주, 미국, 독일, 이탈리아 9개국의 도시농업 전문가 9명과 국내 전문가들이 대한민국의 대표 도시 서울이 만들고 있는 도시농업의 현재를 발견하고 이들의 고민과 열정으로 서울형 도시농업의 미래를 그려봅니다.

도시농업을 통해 건강한 우리의 먹을거리를 함께 고민하면서 생명의 소중함과 이웃에 대한 무한한 사랑을 만나보십시오.

서울특별시, 경향신문사, 서울그린트러스트

Number of people farming in various cities around the world are increasing now.

Generally, agriculture was considered as the work for farmers in the countryside with the purpose of production, but the number of urban farmers that do farming regardless of place, in places such as balcony, rooftop, piece of land, weekend farms or even parks, is increasing these days.

Now that urban agriculture is penetrating deep into our lives like a new trend, what would be the charm of urban agriculture?

It is probably because citizens can produce healthy food by themselves, share family spirit while cultivating a kitchen garden, communicate with neighbors and create a healthy community in the hard lives of urban residents.

Also, urban agriculture adds cultural emotion of rural communities to cities that enables the coexistence of rural and urban communities, while offering an alternative life of rural community in the cities and a sustainable society of life.

Now, urban agriculture is an irreversible trend of the era.

Through Seoul Urban Agriculture EXPO 2016 - International Conference, 9 urban agriculture experts from Japan, China (Hong Kong), Taiwan, Singapore, France, Australia, U.S., Germany and Italy and Korean experts discover the current urban agriculture that Seoul is creating, and sketch the future of Seoul's urban agriculture through their thoughts and passion.

Think about the healthy food through urban agriculture and experience the preciousness of life and infinitely love for neighbors.

Seoul Metropolitan City, The Kyunghyang Shinmun, Seoul Green Trust



서울의 도시농업 현장답사 | Field Trip

코스A Course A

도심형 도시농업 현장

토지의 90% 이상이 개발된 도심, 빌딩숲 한 가운데에서 펼쳐지는 시민들의 경작본능 이야기, 젊은 영혼들이 만들어내는 텃밭의 하모니, 도시를 점거한 양봉가, 서울의 프린세스가르트를 꿈꾸는 사람들의 흥미진진한 이야기가 펼쳐집니다.

Course A Downtown urban farm

More than 90% of urban land has already been developed. In the middle of the forest of buildings, these interesting stories are about the farm created by young people, the bee-keepers who occupy downtown area and the people who are dreaming of Seoul's Prinzessinnengarten.



진행자 옥진주 Jinjoo Ok

서울시 도시농업위원회 위원이며, 농림수산식품부 산하의 공돌이린이텃밭학교 교감으로 일하고 있다. 영국 남만체스터대학에서 수학하였고, 서울시립대학교 대학원에서 원예학으로 석사, 박사학위를 취득하였다. 한국 사회원예연구소 대표로 소년의 집과 교도소 등 소외계층을 위한 원예교육에 주력하고 있다.

Moderator Jinjoo Ok is the committee member of the urban agriculture in Seoul and works as a vice principal for the 'Ggumtle childrens' family garden school' under Ministry for Food, Agriculture, Forestry and Fisheries. She had studied in the field of horticulture of the South Manchester College in U.K. and has a Master's degree and Ph.D of the University of Seoul. She is a director of Korea Social Horticulture Institute and attends various activities as a lecturer and horticultural therapist for the neglected class of general society.

코스B Course B

역사적 도시농업 현장

100년전만 하더라도 서울은 도시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경작지였습니다. 서울의 3대 농업 중 하나인 묵골배 배밭을 텃밭으로 가꾸는 사람들, 아파트 최초로 대규모 농장을 만든 한신에코팜, 산골짜기를 따라 만들어진 자연스러운 논밭에서 텃밭을 일구는 커뮤니티까지 서울의 역사적 도시농업의 현장을 찾아가 봅니다.

Historical urban farm

100 years ago, most areas of Seoul excluding the castle town were farmland. Let's explore Seoul's historical urban farming such as the people who cultivate the farm of Mokgol peach trees, which is one of Seoul's 3 major farming; Hanshin Eco Farm that made the first large scale farm in the apartment complex, and a farming community of the peoples who cultivate farmland including the natural fields and paddies along the mountain valleys.



진행자 이강오 Kangoh Lee

이강오, 1998년 생명의숲에서 NGO활동을 시작하여 서울그린트러스트 사무처장으로 일하며 도시공원의 시민참여 운동과 시민/주민참여에 의해 도시녹화 운동에 주력했다. 도시농업과 가드닝이야말로 시민들의 자발적 힘으로 도시를 변화시키는 원동력이라 생각하는 시민활동가이다. 현재 서울어린이대공원의 원장이며, 서울시 도시농업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Kang-Oh Lee: He had been working for NGOs in the field of Urban Greening since 1998. He worked as a secretary general of Seoul Green Trust focusing on urban greening movement by citizen participation. He is a activists who think that urban agriculture and gardening by citizens is a driving force for changing the city. Since 2015 he works as a head officer of the Seoul Children's Grand Park. He has also served as a member of Seoul Urban Agriculture Committee.

코스C Course C

도시 농업의 개척자

1990년 강남에서 시작한 주말농장 제호 대원농장, 서울의 도시농업과 농부들을 지원하는 서울시농업기술센터, 그리고 구 전체가 도시농업 중인 강동구의 텃밭과 상심드림에서 서울 도시농업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를 만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모두 새롭게 변신중인 서울도시농업의 메카 '노들섬 공동체텃밭'에서 막걸리와 함께 구수한 이야기 마당이 펼쳐집니다.

Frontier of urban farming

The first weekend farm Deawon Farm #1 that started in Gangnam in 1990, the Seoul Agricultural Technology Center founded to support the urban farming of Seoul and farmers, Gangdong-gu whose entire areas are being farmed and Sing-Sing Dream. These are the places where you can meet the past, present and future of the urban farming in Seoul.

And delightful stories unfold with Makgeoli at Nodul Island Community Farm, which is the mecca of the urban farming in Seoul in the course of transformation.



진행자 이창우 Chang-Woo Lee

서울대학교 농업생명과학대학 농업교육학과에서 농학사를 취득하고,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에서 도시계획학 석사, 영국 뉴캐슬 대학교에서 도시계획학 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서울연구원 안전환경연구실 선임연구위원으로 재직하면서 기후에너지연구센터장을 맡고 있다. 도시농업시민협의회 산하 도시농업연구소 소장, 녹색서울시민위원회 위원, 서울시 도시농업위원회 위원, 한국환경정책학회 등으로 활동하고 있다.

Chang Woo Lee has a bachelor's degree in Agricultural Education from Seoul National University, a master's degree in Urban Planning from Seoul Graduate School of Environmental Studies and a PhD from Newcastle University in England. He works as a senior researcher at the Institute of Environmental Protection and Safety, SNU, and is the Director of the Climate and Energy Research Centre. He is also the Manager of the Research Center for the Committee of Urban Horticulture, a member of the Seoul Committee of Urban Horticulture, Citizens' Committee for Green Seoul, and the Director of the Korea Environmental Policy and Administration Society (KEPAS).

도심형 도시농업 현장

Downtown Urban Farms

○ 유네스코회관 옥상정원 '작은 누리'

위치 : 서울 중구 명동길 26 유네스코회관 12층 nuri.unesco.or.kr 서울 명동 한복판에 자리한 유네스코 회관 옥상에 자리한 생태공원으로, 2003년 개원 이후 도시 열섬현상을 완화하는 비오톱(Biotop, 생물서식공간)형 옥상녹화로 주목을 받아왔습니다. 한때 관리 어려움으로 출입제한 된 적도 있었으나 2013년 리모델링 공사를 통해 연결계단 설치, 배롱나무카페 운영 등으로 접근성이 향상되었습니다. 유네스코한국위원회 '작은누리꾼'이라는 동호회가 결성되어 모니터링과 운영에 참여하고 있으며, 어반비즈(Urban Bees Social Enterprise)가 도시양봉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요시설과 활동 : 인공습지, 텃밭, 배롱나무 카페, 빗물이용 관수시스템, 태양에너지 이용한 물순환 시스템, 하늘양봉
비밀기지 키친팜 (구)석유비축기지
위치 : 서울시 마포구 성산2동 515-19 월드컵경기장 서문 건너편 공영주차장 안쪽 컨테이너
<http://bibil.org/>

비밀기지는 2010년 방치되어있던 (구)마포석유비축기지 내 공간을 시민문화공간으로 만들고자 자발적으로 모인 사람들과 생태문화, 제작문화, 지속가능한 라이프스타일에 대한 실험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사회적기업'문화로 놀이방'과 '명랑에너지발전소' '생활기술융합제작소' 구성되어 있습니다. 비밀기지 키친팜은 2015년 시작하여 '마르쉐친구들, 수카라 김수향, 홍대도시텃밭 자란다'가 공유의 도시텃밭으로 협업운영하며, 텃밭의 수확물은 비밀기지에 키친의 워크숍에 이용하고 있습니다. 농사의 경험을 나누고, 배움이 축적되는 공간! 텃밭의 채소가 우리들의 밥상에 오르는 공간! 다같이 가꾸고, 나누고 순환되는 공간을 지향합니다.

주요시설과 활동 : 농부워크숍 함께하는 밥상 등 키친팜 회원 프로그램 / 시농제 / 김장잔치

○ 국회생생텃밭

위치 :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국회의사당 내 국회의안의 헌정회 잔디밭을 걷어내고 만든 텃밭입니다. 다양한 텃밭 활동을 통해 농업의 중요성과 도농 상생의 가치를 몸소 체험한다는 차원에서 2015년 시작되었습니다. 여야 국회의원 50여명이 참여하여 직접 땀을 흘려 텃밭을 가꾸고 있으며, 텃밭에서 이뤄지는 소통과 화합이 우리사회 각 계층의 건강 과정속에서 건강 · 여유 · 나눔 · 공감으로 확산되는 기폭제 역할이 되고, 도시농업의 불을 일으키는 중요한 계기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주요시설과 활동 : 감자캐기행사 / 공동텃밭 열무수확 / 한돈 김장나눔행사



○ UNESCO Hall Rooftop Farm 'Jageun Noori'

Location : UNESCO HALL(12th floor) 26, Myeongdong-gil, Jung-gu, Seoul
nuri.unesco.or.kr

It is an eco park at the rooftop of the UNESCO HALL located at the heart of Myeongdong, Seoul. Since it opened to the public in 2003, it has drawn the public attention as the biotop(biological habitat) rooftop greening which can reduce the urban heat island effect. The civilian access to the rooftop was limited once because of the difficulties in management. But the connecting staircases were installed through the remodelling in 2013 and Cafe 'Crape Myrtle' opened, which improved the accessibility to the rooftop. A community named "Small Netizen" formed at the Korean National Commission of UNESCO takes charge of monitoring and managing the rooftop garden. Urban Bees Social Enterprise operates the urban bee farm.

Main facilities and activities: artificial wetlands, gardens, Cafe 'Crape Myrtle', irrigation system using rainwater, water circulation system using solar energy, Haneul bee farming

Bibil KIJEE Kitchen Farm(the former petroleum storage site)

Location : Container at the pubic parking, 515-19 Seongsan2-dong, Mapo-gu, Seoul
<http://bibil.org/>

Since 2010 Bibil KIJEE in conjunction with the people who volunteered to make a civil cultural space inside the former Mapo Petroleum Storage Site, which was neglected, have been continuing experiments for ecological culture, production culture and sustainable lifestyle. For the culture of 'social enterprise', it was composed of 'Norijjang', 'Myeongrang Energy Power Station' and 'Life Skill Convergence Workshop'. Starting from 2015, Bibil KIJEE Kitchen Farm is jointly operated by 'Marché Fiends', 'Kim, Su Hyang of Sukara', 'Hongik University Urban farm Jaranda', and the products from the farm is used for the workshop at Bibil KIJEE Kitchen Farm. A space for sharing farming experiences and accumulating knowledge from learning! A space for growing vegetables for our dining table! It aims at a space for growing and sharing and exchanging all together.

Main facilities and activities: Kitchen Farm member program such as farmer workshop 'Dinning Table for Sharing'/Sinong Ceremony/ Kimjang Festival

○ Saeng Saeng farm of the National Assembly of the Republic of Korea

Location : The National Assembly of the Republic of Korea, Euisadangdaero 1, Yeongdeungpo-gu, Seoul

The lawn of the Parliamentarian Society was removed to make this garden. It started from 2015 with the aim experience the importance of farming and the mutual growth of cities and farming areas. It is expected that the communication and harmony achieved through farming would serve as a momentum for enhancing our health, composure, sharing and empathy and for the boom of urban farming.

Main facilities and activities: potato digging event/community farm young radish harvest/Handon Kimjang sharing event



역사적 도시농업 현장

Historical urban farm

○ 천수텃밭과 배농장

위치 : 노원구 중계동 46-1

불암산 자락에 위치한 천수텃밭은 주민들이 모여 친환경 먹거리를 키우고 이웃과 즐거운 모임을 이어가는 공간입니다.

주요시설과 활동 : 배수확체험 / 버섯재배장 / 풀요리 풀체험 풀학교 / 도시농부학교 / 노원 시농제 / 배꽃음악회

○ 한신에코팜

위치 : 노원구 공릉동 351 하계한신아파트

도시 속 옥상 텃밭 '한신에코팜'은 각박한 도시에서 사람 냄새 나는 아파트를 만들기 위해 주민들이 만든 공동체 텃밭입니다. 2012년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에서 '한신에코팜'을 결성하고 15층 옥상에 상자텃밭을 만들었습니다. 함께 농사짓고 서로 쌓은 농사 노하우를 교류하면서 나눠먹고 함께 사는 아파트 공동체를 만들고 있습니다.

주요시설과 활동 : 옥상 상자 텃밭 / 빗물 이용 자연순환농법 작물 재배 / 노원 몬드라 협동조합

○ 무수골농장

위치 : 도봉구 도봉1동 469

<http://musoogoljinbo.net>

도봉산 자락에 위치한 무수골 자연마을 입구에 위치한 무수골농장은 맑은 계곡이 농장 앞으로 흐르고, 뒤로는 크고 작은 산봉우리들이 펼쳐진 풍광이 아름다운 공간입니다. 수백 년간 자연농지로 경작해 오던 곳으로 밭에 별이 잘 들고 흙이 좋아 천혜의 조건을 갖추고 있습니다. 2004년 수년간 폐농되었던 농지를 주말농장으로 전환해 현재 1000여명의 회원에게 분양하고 있습니다.

주요시설과 활동 : 매년 2월 분양, 회원 대상 텃밭정원가꾸기 교육프로그램 / 컬러푸드 영양교육 / 식용 꽃 활용과 한방차 허브음료만들기 / 도봉산 문화탐방

○ Cheonsu farm and Peach Farm

Location 46-1 Junggye-dong, Nowon-gu

At Cheonsu farm located at the foot of Mt. Bulam, citizens grow eco-friendly food materials and hold gatherings with neighbors.

Main facilities and activities : peach harvest experience / mushroom plantation / grass dish grass experience and grass school / urban farmers' school / Nowon Sinong Ceremony / pear flower music concert

○ Hanshin Eco Farm

Location : Hagye Hanshin Apt. 351 Gongneung-dong, Nowon Hanshin Apartments

Hanshin Eco Farm, an urban rooftop garden, is a community farm made by the citizens of the apartment complex with the aim to make the apartment of human touches in a hostile city. Making Hanshin Eco Farm was determined at the meeting of the representatives of the apartment tenants in 2012 and the box-type farm was made on the rooftop(15th floor). The tenants exchange the know-how of farming and share foods through this community.

Main facilities and activities : rooftop box-type garden / natural circulating farming using rainwater / Nowon Mondra Cooperative

○ Musugol Farm

Location 469 Dobong1-dong, Dobong-gu

<http://musoogoljinbo.net>

It is located at the entrance to Musugol Natural Village at the foot of Mt. Dobong. The clear water is running in the valley in front of the farm and small and large mountain tops unfold behind the farm. It has been cultivated as the natural farm land for hundreds of years and it has a wonderful natural environment - the sun comes well on the field and the soil is excellent. In 2004, the farm land which has been closed for several years was turned into weekend farm and then it was sold to 1,000 members.

Main facilities and activities : sales in lot in February every year, gardening education program for members / color food nutrition education / how to use herbs and make herb teas / Dobong Mountain culture exploration



도시 농업의 개척자

Frontier of urban farming

○ 강동구 공동체텃밭 외

위치 : 강동구 상일동 145-6 (공동체텃밭)

강동구는 6천년 선사문화 유적을 간직하고 있는 역사의 고장입니다. 농경문화의 개시를 입증하여 주는 고고학적 자료가 많이 발견되는데 그만큼 예부터 사람이 살기에 적합한 곳이었습니다. '사람이 아름다운 강동'이라는 슬로건 아래 강동구 도시농업은 사람과 도시가 상생하고 공동체문화를 형성하도록 애쓰고 있는 우리구의 선도적인 사업이 되었습니다. 강동구는 여기서 한발 더 나아가 친환경 도시농업의 활성화를 유도하여 구민주도의 도시농업이 될 수 있도록 도시농업의 저변 확대에 힘쓰고 있습니다.

주요시설과 활동 : 도시농업지원센터, 도시농업순환센터, 도시농업공원, 공동체텃밭 / 토종종자학교 / 생태는 체험 / 도시 양봉 / 씨앗도서관

○ 서울특별시농업기술센터 (Seoul Agricultural Technology Center)

1957년도에 설립되어, 가족과 이웃이 함께하는 아그로-시티 서울(Agro-City Seoul) 조성이라는 비전을 가지고 시민과 함께하는 도시농업 기술보급, 서울농업 인재육성, 생태도시 조성을 위한 녹색생활교육, 친환경 농업기술보급을 통한 미래 신성장 산업으로서의 농업 활성화에 힘쓰고 있습니다. 서울시민을 위하여 연간 4만여명을 대상으로 도시농업 교육을 추진하고 있으며, 3천명의 농업전문 인력을 육성하고 있습니다.

○ 대원농장

서초구 청계산 아래 자리잡은 조그만 마을에 1750년부터 지금까지 300년 동안 10대에 걸쳐 농사를 짓고 있습니다. 농사를 짓는 김대원 최성희 부부는 1982년에 농어민 경영인으로 선정되어 벼농사, 채소와 화훼 농사를 해오다 1989년부터 최초로 주말농장을 시작하여 현재 회원 1500세대의 가족주말농장으로 서울시민에서 '농심'을 심어주고 있습니다. 100세까지 건강하게 살기 위한 농업을 통한 여가선영과 노인들의 소일거리 장소로 건강하게 삶의 행복을 느낄 수 있는 곳입니다.

주요시설과 활동 : 귀농' 귀촌 정착을 위한 현장체험과 교육 / 경로잔치 / 김장나눔 / 농촌일손돕기 봉사활동 / 전국농산물직거래 / 자연생태숲체험 및 반딧불이 살리기 운동 / 대원팜스 음악회 / 꼬마농부학교, 농업'승마 재활학교, 농업태교 (예정)



○ Gangdong-gu Community Farm, etc.

Location: 145-6, Sangil-dong, Gangdong-gu (community farm)
Gangdong-gu is a historic ground that keeps the 6000-year-old prehistoric cultural relics. Many archaeological materials, that can prove the start of the farming culture, are found, which demonstrates that this area suits the people living from old times. Under the slogan "Beautiful Gangdong-du, Beautiful Citizens", the urban farming of Gangdong-gu has led the mutual growth of the city and citizens and the development of community culture. And furthermore, Gangdong-gu makes endeavors to expand the base for urban farming by promoting the eco-friendly urban farming.

Main facilities and activities: Urban Farming Support Center, Urban Farming Virtuous Circle Canter, Urban Farm Park, community farm/native seeds school/eco rice paddy experience/urban beekeeping/seeds library

○ Seoul Agricultural Technology Center

Founded in 1957 based on the vision "Agro-City Seoul with family and neighbors", it has strived for the urban agricultural technology dissemination, the training of the manpower for the farming of Seoul, the education for green life for the creation of eco city and the promotion of agriculture as future growth industry through the dissemination of the eco-friendly agricultural technology. And furthermore it promotes the education of urban farming for 40,000 Seoul citizens and trains 3,000 agriculture experts on an annual basis.

○ Daewon Farm

In a small village located at the foot of Mt.Cheonggye in Seocho-gu, 10 generations have continued farming for 300 years from 1750. Kim, Dae Won and Choi, Sung Hee, a married couple, were selected agriculture and fishery entrepreneur in 1982. They raised rice, vegetables and flowers, and then started weekend farm since 1989, and grow the weekend farm for 1,500 households. In this place the homo-hundred make good use of their leisure time and live healthy lives.

Main facilities and activities: field experience and education for return-to-the-soil-movement/men/silver parties/Kimjang sharing/ voluntary services for providing helping hands for farming/national farmers' market/ecological forest experience and fireflies-saving movement/Daewon Farm's Music Festival/little farmers' school, agriculture riding school rehabilitation, agriculture prenatal education(scheduled)



공동코스 Common Course

○ 어린이대공원 어린이텃밭

위치 : 광진구 능동로 216 서울어린이대공원 후문

1973년에 개장한 어린이대공원은 푸른 숲과 동물원, 식물원, 놀이시설 등을 갖춘 시민공원입니다. 2012년에 어린이대공원내에 텃밭을 조성하였으며 지역주민을 위한 커뮤니티가든으로, 미래세대를 위한 체험교육의 장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한살림 식생활교육센터와 한 살림 농산물위원회가 함께 어린이를 위한 체험과 놀이를 바탕으로 한 먹거리 교육, 생명에 대한 감수성을 높이는 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주요시설과 활동 : 논, 채종포 / 어린이 먹거리 교육 '자연식감 텃밭놀이', '맛있는 텃밭' / 도시농부학교 / 어린이 논학교 / 어린이 텃밭 교육

○ 용산구 노들섬 노들텃밭

Nodul Island Farm

위치 : 용산구 양녕로 445 <http://cafe.naver.com/ndfarm>

토종이 자라나는 한강 위 작은 섬! 노들섬에 위치한 서울 최초의 도시농업공원으로 10,100㎡의 경작지를 가지고 있으며, 다양한 단체와 시민들이 함께 생태순환유기농법을 실천하며 토종논과 토종밭을 일구고 있습니다. 2012년 한강에 숲섬 사업 보류 이후 텃밭으로 임시 활용되고 있다가 2015년 '노들꿈섬 조성계획'에 따라 새로운 변화의 자리에 서 있습니다.

주요시설과 활동 : 농부학교 / 노들캠프 / 논두렁 콘서트 / 율령농사체험 / 토종벼축제 / 감장축제



○ Children's Grand Park's Children's Farm

Location : the postern gate of Children's Grand Park, 216, Neungdong-ro, Gwangjin-gu, Seoul

Children's Grand Park, which opened in 1973, is a public park with green forests and zoos, botanical gardens and amusement facilities. A community farm was created inside Children's Grand Park in 2012. It will be a space for the experience education for future generations. both the Hansalim Dietary Life Education Center and the Hansalim Agricultural Products Screening Committee promote the education on foods and the importance of life forms based on the experiences and plays for kids.

Main facilities and activities : rice paddies, seed farm/education on foods for kids 'natural mouth-feel farm play'/'urban farmers school/rice paddy school for kids/farm school for kids

○ Nodul Island Farm

Location : 445 Yangnyeong-ro, Yongsan-gu

<http://cafe.naver.com/ndfarm>

On a small island of the Han river, native plants are growing. Nodul Island Farm is the first urban farm park in Seoul and has the farm land of 10,100㎡. Citizens and various organizations practice organic farming based on ecological cycle, and cultivate native rice paddies and fields. It was used as farm temporarily because the Han River Art Island Project was shelved in 2012, and now is on the verge of transformation according to 'Nodul Dream Island Mater-Plan' in 2015.

The main facilities and activities : farmers' school/Nodul camp/nondurung concert/yulryeok farming experience /native rice festival/Kimjang festival





The 5th Seoul Urban Agriculture EXPO
International Conference 2016

Session1

살아남기 | Surviving

키워드

지속가능, 종다양성, 토종종자,
먹거리, 일자리, 경제
sustainability, biodiversity, seeds,
food, jobs, economy



진행자 안철환 (한국)
Chul-Hwan An (Korea)

> 진행자 안철환 (한국)

서울도시농업위원회 실무위원장으로 활동 중이며, (사)텃밭보급소 대표를 맡고 있다. 경기도 안산에서 2000년부터 농사를 지었고 2004년부터 도시농업 운동을 시작했다. 2012년 전국도시농업시민협의회 창립을 이끌고 2016년 초까지 상임대표를 맡아 활동했다. 또한 2004년부터 토종 종자 수집과 보전, 나눔을 실천하며 더불어 토종 종자에 맞는 전통농법을 복원하기 위한 연구와 실천에 주력하기 위하여 2015년 전통농업 연구소를 창업하였다. 지은책으로 '내 손으로 일구는 유기농 텃밭'(2006, 들녘), '시골똥, 서울똥'(2009, 들녘), '24절기와 농부의 달력'(2011, 소나무), '전통농업의 꿈'(2014, 텃밭보급소) 등이 있으며 번역한 책으로는 '생태도시 아바나의 탄생'(2004, 들녘)이 있다.

> Chul-Hwan An (Korea)

Chul Hwan An is currently serving as the commissioner of Seoul Urban Agriculture Commission, and is the president of Urban Gardening Mentor's Corporation. He started farming since 2000 in Ansan, Gyeonggi-do, and started the urban agricultural movement since 2004. He led the foundation of Korean Urban Agriculture Ngo Conference(KUNC) in 2012, and served as the standing president until early 2016. Also, he established Traditional Agricultural Research Institute in 2015 to concentrate on the collection, preservation and sharing of native seeds and the search and practice to restore traditional agricultural techniques suitable for native seeds. He has written many books, including 'Organic Kitchen Garden Cultivated by My Hands' (2006, Deulnyuk), 'Rural dung, Urban dung' (2009, Deulnyuk), '24 Solar Terms & Calendar of Farmer' (2011, Sonamoo) and 'Dream of Traditional Agriculture' (2014, URM), and translated 'The Birth of the Eco-city of Havana' (2004, Deulnyuk)

> 발표자

독일 Germany	마르코 클라우젠 베를린 프린체신가르텐과 마을학교	Marco Clausen Prinzessinnengarten and Neighborhood Academy Berlin
일본 Japan	토시아 코타니 일본의 재해 피해를 줄이기 위한 도시농지의 활용	Toshiya Kotani Utilizing farmland in urban areas for reducing disaster damages in Japan
이탈리아 Italy	프란체스코 팩신 허니 팩토리 : 도시양봉을 위한 마이크로 아키텍처	Francesco Faccin Honey Factory - Microarchitecture for Urbanbeekeeping
한국 Korea	안완식 한국의 도시농업과 토종종자	Wan-Sik Ahn Korea's urban agriculture and native seeds



○ Prinzessinnengarten and Neighborhood Academy Berlin

Marco Clausen | co-initiator of Prinzessinnengarten

Marco Clausen, born in 1974, holds a Master in Historical and Political Sciences and Philosophy. In 2009 Clausen founded together with Robert Shaw the non-profit organization "Nomadisch Grün" (Nomadic Green), which aims at transforming abandoned urban spaces into social and ecological gardens. He is the co-initiator of Prinzessinnengarten: a place dedicated to urban agriculture, environmental learning, and neighborhood participation at Moritzplatz in Berlin-Kreuzberg. Clausen organized several thematic workshops and events on feeding the city, youth participation, urban resilience and urban farming in the European context. In 2012 Dumont publishing house released "Prinzessinnengarten. Anders gärtnern in der Stadt" (Prinzessinnengarten. A Different Way of Gardening in the City). The publication includes texts and photographs from Marco Clausen. An important area of Clausen's engagement is a sustainable and resilient urban development. In the form of lectures, publications, participatory research, cooperations with artists and activists he contributes to the question of how our cities will face the challenges of the future. In 2015 he co-founded the Neighborhood Academy in Prinzessinnengarten, a self-organized open platform for urban and rural knowledge sharing, cultural practice and activism.

○ Synopsis

As co-founder of the Berlin based social ecological urban agriculture project "Prinzessinnengarten" and the Neighborhood Academy, I will focus on the social and educational potentials of bottom-up initiatives. I will also address the obstacles encountered when dealing with regulations and land tenure. Bottom-up and community based projects like Prinzessinnengarten are characterized by improvisation, do-it-yourself, temporary strategies, cooperation, diversity, local knowledge, informal spacial interventions and the creation of networks. Successful practices are often of informal and participatory nature, therefore contrasting to professional approaches.

Prinzessinnengarten is a self-organized urban gardening project run as a social business. The main purpose of the project isn't the production of food, although we produce local organic food for neighbors and the garden restaurant. More importantly our mission is set on raising awareness on topics concerning the predominant industrial food system, the role cities play in it and the social and ecological costs of our ways of consumption. Through hands-on experiences and informal learning Prinzessinnengarten gives neighbors, school kids, visitors, students and researchers the chance to create and experiment with local answers to global challenges like climate change, land grabbing, loss of biodiversity, food sovereignty, environmental justice. We invite activists, artists, experts, and other projects to the Neighborhood Academy to work on these issues.

Our experience informs us that these practices of space making have the potential to change the way a city and it's

relation to rural areas is conceptualized and understood by its citizens, with questions engaging with the future of the city, the role communities can play within it and the role of citizens in planning and contributing to sustainable and resilient forms of urbanization. These spaces also catalyze a conversation about the relation between urban areas and a globalized countryside. Community based urban agriculture initiatives are often started as informal and temporary strategies from the bottom up, lacking formal recognition and often characterized by uncertain land tenure. In the context of a neoliberal agenda - privatization as an instrument of austerity policies - they are threatened by developments in the real estate market. When the city of Berlin wanted to privatize the land of Prinzessinnengarten in 2012 we collected 30000 signatures, claiming that urban gardens are more than just sophisticated backyard greenery. They provide incentives for sustainable and neighborhood-oriented urban development, and give people room to actively shape their environment and the food system they are living in. Projects like Prinzessinnengarten might in the near future not produce food in a substantial way, but nevertheless they can serve as pioneer projects, affecting the way we look at the production and consumption of food. They can help us to imagine resilient cities as well as a social and ecological just relations between the urban and the rural.

○ 베를린 프린체신가르텐과 마을학교

마르코 클라우젠(Marco Clausen) | 프린체신가르텐 공동 창립자

마르코 클라우젠은 1974년에 태어났고, 역사 정치학 및 철학의 석사학위를 땀다. 2009년에 클라우젠은 로버트 쇼(Robert Shaw)와 함께 "노마딕 그린"이라는 비영리단체를 설립하였다. "노마딕 그린"은 버려진 도시 공간을 사회적으로 생태적인 정원으로 바꾸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로버트 쇼는 프린체신가르텐의 공동 창립자이다. 프린체신가르텐은 베를린 크로이츠베르크의 모리츠플라츠에 위치한 도시 농업, 환경교육 그리고 주민 참여를 위한 공간이다. 클라우젠은 유럽에서 도시를 먹여살리는 일, 청소년 참여, 도시 회복 및 도시농업 등과 관련된 몇 가지 주제의 워크숍을 조직하였다. 2012년에 듀몬트 출판 하우스(Dumont Publishing House)는 "프린체신가르텐, 도시에서 정원을 가꾸는 다른 방법"을 출판했다. 그 출판물에는 마르코 클라우젠의 글과 사진이 담겨있다. 클라우젠의 주요 영역은 지속가능하고 탄력적인 도시 개발이다. 강의, 출판, 연구, 예술가 및 활동가들과의 협업을 통해 어떻게 하면 우리 도시가 미래의 도전에 직면할 수 있는지에 관한 문제를 다루었다. 2015년에 그는 프린체신가르텐에 마을학교(Neighborhood Academy)를 공동 설립하였다. 마을학교는 도시 및 농촌의 지식공유, 문화적 실천 및 활동을 위한 스스로 조직하는 개방 플랫폼이다.

○ 개요

베를린을 기반으로 한 사회·생태학적 도시농업 프로젝트인 "프린체신가르텐"과 "마을학교"의 공동 설립자로서, 상향식 주도의 사회 및 교육적 잠재력에 중점을 두고 이야기할 것이다. 또한, 규제 및 토지 보유를 다룰 때 발생하는 장애에 대한 문제를 짚어 보려 한다. 상향식 그리고 프린체신가르텐과 같은 공동체 기반 프로젝트는 즉흥, 스스로 하는 것, 임시 전략, 협동, 다양성, 지역적 지식, 비공식적 공간의 존재와 네트워크의 창조로 특징화 된다. 성공 사례들은 종종 비공식적이고 참여적 성격을 갖고 있으며 이는 전문적 접근방식과는 대조를 이룬다.

프린체신가르텐은 사회적 비즈니스로서의 스스로 조직하는 도시 정원을 가꾸는 프로젝트이다. 비록 우리는 이웃 및 정원 레스토랑을 위해 지역 유기농 음식을 생산하지만, 프로젝트의 주목적은 음식을 생산하는 것은 아니다. 우리의 임무의 더 중요한 점은 주 산업 음식 체계, 도시가 그 안에서 하는 역할과 우리의 소비에 따른 사회 및 생태학적 비용에 관한 주제들에 대한 인식을 끌어 올리는 데 있다. 실제 경험과 비공식적 학습을 통해 프린체신가르텐은 이웃들, 어린이들, 방문객들, 학생 및 연구자들에게 기후 변화, 토지 수탈(Land Grabbing), 생물의 다양성 감소, 식량 주권, 환경 정의와 같은 국제적 문제들에 대한 지역적 해답을 창출하고 실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것이다. 우리는 활동가들, 예술가들, 전문가들 및 이러한 이슈들을 다루기 위한 마을학교에 대한 다른 프로젝트들을 초대하고자 한다.

우리의 경험은 이러한 공간을 만드는 실습은 한 도시와 농촌 지역의 관계에 대해 개념화하고 시민들이 이해하고 있던 기존의 방법을 변화시킬 수 있는 잠재력을 갖고 있다는 것을 알려준다. 그렇게 함으로, 미래의 도시, 지역 공동체가 그 안에서 하는 역할 및 지속가능한 탄력적인 도시화의 형태에 대해 공헌하고 계획하는 시민들의 역할이 무엇인지에 대한 질문을 던질 수 있게 된다. 이 공간들은 도시 지역들과 국제적인 시골 지역의 관계에 대한 대화를 촉진시킨다. 공동체가 기반이 된 도시 농업 주도권은 종종 비공식적이고 임시적인 상황식 전략에서 시작된다. 또한, 공식적인 인식이 결여되어 있고, 불특정된 토지 소유에 의해 특징지어진다. 건축 정책의 도구로서의 민영화라는 '신자유주의 안전'의 문맥에서 볼 때, 도시 공간들은 부동산 시장의 발전에 따라 위험을 받게 된다. 2012년도에 베를린 도시가 프린체신가르텐 땅을 사유화하려 했을 때, 우리는 도시 정원이 '세련된 뒤들의 녹지' 이상의 의미를 갖는다고 주장하는 내용으로 3만명의 서명을 받았다. 프린체신가르텐은 지속가능한 지역 중심의 도시 개발을 위한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사람들에게 그들의 환경과 음식 체계를 가꿀 수 있는 공간을 줄 것이다. 프린체신가르텐과 같은 프로젝트는 실질적인 방법으로 음식을 생산하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의 음식 생산 및 소비를 바라보는 방법에 관해 영향을 주면서, 새롭게 개척하는 프로젝트에 머지않아 도움을 줄 것이다. 그런 프로젝트들은 도시와 농촌간의 사회적이고 생태학적인 관계 뿐만 아니라, 회복력이 있는 도시들을 상상하게 하는 데 도움을 줄 것이다.





▲ Beautiful local landscape of urban farmland with farmhouse surrounded by woodlands (in Nerima City Tokyo)

숨으로 둘러싸인 농가와 함께한 도시 농지의 아름다운 지역 풍경 (도쿄의 네리마)

Utilizing farmland in urban areas for reducing disaster damages in Japan

Toshiya Kotani | Professional.Engineer.Jp (The Advice Center of Urban Farmland Use, Japan)

born in 1965

Master of Engineering [Department of Civil and Environmental Engineering,Saitama University,Japan](1993)

P.E.Jp[Professional Engineer in Japan. Specialized field is Urban & Regional Planning](2012)

In my career, I almost engaged in researching and advising on urban planning after graduate university espically about urban farmlanduse from 2008 up to now.

Researcher of the Urban Planning and Design Institute Co.(1993-2004)

Co-founder and executive director of nonprofit organization

"Green-Necklace", the task of this NPO is to make good urban environment

along railwayDand conservating green space which is related to urban farmers in Tokyo,Japan.(since 2000)

Chief Researcher of Community Design Center, Nerima Urban Development Corporation.,Tokyo,Japan(2008-2013)

Senior Research Engineer of the Advice Center of Urban Farmland Use in JAPAN(2013-)

Synopsis

Farmland in urban areas may be used for emergency evacuation, food supply and others when a disaster has occurred. In order to prepare for disasters, many municipalities in Japan have entered into agreement with agriculture cooperatives on utilizing the farmland for reducing disaster damages.

Farmland in Japanese urban areas have many roles for life in the city. The farmland supplies not only food but also green landscapes, maintains good environment for lowering the temperature, offers food/nutrition education and recreational activities such as harvesting and farming experience, and prevents disasters.

Farmland in urban areas decreased significantly in the past half century under an urbanization policy to develop the land into urban areas. However, recently the farmland is recognized as one of the important functions of cities. In 2015, the basic law for urban agriculture promotion was established. The law has specified the roles of farmland in urban areas as a disaster prevention site.

In 2015, municipalities and agriculture cooperatives of 56 cities out of about 225 specific cities in three greater metropolitan areas have entered into agreement on utilizing farmland in urban areas for reducing disaster damages. The number of the agreement nearly doubled in ten years from 2005. In Tokyo, the first agreement was entered in 1995, when the Great Hanshin-Awaji Earthquake occurred.

Since the Earthquake, farmland in urban areas has been regarded to be valuable for emergency evacuation, as evacuation routes, and for preventing spread of fire. In addition, after the Great East Japan Earthquake that occurred in 2011, the farmland has been utilized as a temporary housing construction site.

The agreement covers earthquake, wind and flood damages,

and targets urbanization promotion areas in cities. A typical agreement specifies the following roles of the farmland:

- Accepts evacuees whenever an emergency has occurred.
- Supplies food to evacuation sites when municipalities request the supply.
- Provides a site for constructing temporary housing. / Provides spaces for storing construction materials.

Some agreements were revised recently, adding new roles of the farmland, such as the provision of agricultural machines. (E.g. a chain saw to cut down fallen houses to rescue the residents.)

However, according to experts, this framework still has some challenges, including various constraints in land conditions, few drills, incomplete action plans and framework, and insufficiently-discussed disaster compensation framework.

Continuous drills and securing volunteers in individual districts are important elements for effectively utilizing farmland in urban areas for disaster prevention. In Japan, many residents' associations conduct emergency disaster prevention drills every year, but few of them utilize farmland in urban areas. A residents' association conducted an emergency food service drill by using a farmland that is usually open to citizens for learning farming. The chairman of the association has said that their community has been established through farming experience, so the community will likely help each other when a disaster has occurred.

From 2016, the Ministry of Agriculture, Forestry and Fisheries launched a community support project for organizations that are utilizing farmland in urban areas for reducing disaster damages. The roles of the farmland in urban areas against disasters are becoming more and more important in Japan.

일본의 재해 피해를 줄이기 위한 도시농지의 활용

토시아 코타니(Toshiya Kotani) | 재단법인 도시농지활용지원센터 선임연구원

- 1965년도 출생

- 일본 사이타마 대학 토목 및 환경 공학과 석사 학위 취득(1993)

- 도시 및 지역 개발 전문 엔지니어(2012)

- 도시 계획 및 디자인 전문 기관의 연구원(1993-2004)

- 비영리기관 "초록 목걸이"의 공동 설립자이자 전무이사(2000년 이후)

: 일본 도쿄의 철로와 보존녹지를 도시 농부들과 관련시켜 좋은 도시환경을 만드는 단체

- 일본 도쿄 네리마 도시개발주식회사 공동체 디자인 센터의 최고 책임자(2008-2013)

- 재단법인 도시농지활용지원센터 선임연구원(2013-)

- 도시의 농지 사용에 대해서 2008년부터 현재까지 연구 및 상담을 해오고 있다.



Entrance of Kato's experience farm. An emergency drill has been performed in this farm. (Nerima City, Tokyo)

카토의 체험농장의 입구. 긴급 훈련이 이 농장에서 수행되었음 (도쿄의 네리마)

개요

도시 지역의 농지는 긴급 피난, 음식 공급 및 재난이 발생했을 때 등의 기타 용도로 사용될 수 있다. 재난을 예방하기 위해, 많은 일본의 지방 자치 단체들은 재난 피해를 줄이기 위한 농지를 활용하는 것에 대해 농업 협동조합과 계약을 체결하였다. 일본의 도시지역에 있는 농지는 도시 생활을 위한 많은 역할을 갖고 있다.

농지는 음식뿐만 아니라 녹색 풍경을 제공하고 기온을 낮추는데 좋은 환경을 유지시켜주고, 음식 및 영양관련 교육과 수확, 농장 활동 및 재난 방지와 같은 레크레이션 제공한다. 과거 반세기동안 도시 지역에 있는 농지는 토지를 도시화하는 정책으로 인해 엄청나게 줄어들었다. 그러나 최근 농지는 도시의 중요한 기능 중 하나로 인식되고 있다. 2015년에 도시 농업 프로모션을 위한 기초법이 설립되었다. 그 법은 도시 지역에서 농지의 재난 방지 장소로서의 역할을 명시했다.

2015년도에 3개 주요 대도시의 약 225개 특정 도시들 중 56개 도시의 지방 자치 단체들과 농업 협동조합들은 재난 피해를 줄이기 위해 도시 지역의 농지를 사용하는 것에 대한 계약을 체결했다. 계약체결건수는 10년 동안 2005년 대비 거의 두 배가 되었다. 한산-아와지 지진이 발생했던 1995년에 도쿄에서 첫 계약이 체결되었다. 지진 이후로, 도시 지역의 농지가 피난 경로 및 화재 번짐 방지 역할로서의 긴급 피난을 위한 가치가 있는 것으로 여겨졌다. 추가적으로, 2011년에 발생한 동일본대지진 이후, 농지는 임시 주택 건설 현장으로 활용되었다. 그 계약은 지진, 바람, 홍수 피해를 보상하고, 도시에서의 도시화 추진 지역을 대상으로 한다. 한 전형적인 계약은 농지의 다음과 같은 역할에 대해 명시하고 있다.

- 긴급 상황이 발생했을 때 언제라도 피난민들을 받아준다
- 지방 자치 단체들의 요청 시, 피난처에 음식을 공급한다
- 임시 주택 건설을 위한 장소 / 건설자재들을 저장하기 위한 공간을 제공한다.

최근에 계약 몇 건이 농업 기계(예, 거주자들을 구조하기 위해 무너진 집들을 절삭할 전기톱)의 제공과 같은 농지의 새로운 역할을 추가하면서 수정되었다. 그러나, 전문가들에 따르면, 이러한 내용에는 토지 제약, 훈련 미숙, 불완전한 실행 계획 및 구조 등을 포함한 몇 가지 문제점이 있다고 한다. 또한, 재난 보상 구조에 대한 논의도 불충분하다. 지속적인 훈련과 각 지역의 봉사자들을 확보하는 것은 재난 방지를 위해 도시 지역들의 농지를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중요한 요소이다. 일본에서는 매년 많은 주민 협회들이 긴급 재난 방지 훈련을 실시하나 도시지역의 농지를 활용하는 협회는 거의 없는 실정이다. 한 주민 협회는 농업 학습을 위해 시민들에게 개방된 농지를 활용함으로써 긴급 식량 서비스 훈련을 시행하였다. 그 협회의 의장은 그들의 공동체가 농업 경험을 통해 설립되었고, 이에 따라서 그 공동체는 재난이 발생할 때, 서로 도울 것이라고 말했다. 2016년 농산림수산부는 재난 피해 감소를 위한 도시 지역 내의 농지를 활용하는 단체들을 위한 공동체 지원 프로젝트에 착수했다. 일본에서 도시 지역 내에 있는 재난 대비를 위한 농지의 역할은 시간이 갈수록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



▲ Ordinary scene - Many citizens learn farming from the owner at an urban farmland under a pavilion. (Nerima City, Tokyo)

흔한 장면 - 많은 시민들은 임시 구조물 아래서 도시 농지의 소유자로부터 농업을 배운다. (도쿄의 네리마)



▲ Drill scene - Distributing soup made of vegetables from farmland to citizens at a greenhouse. (Nerima City, Tokyo)

훈련 장면 - 농장 그린하우스에서 시민들에게 야채 스프를 나눠줌. (도쿄의 네리마)



▲ Ordinary scene - Many citizens learn farming from the owner of an urban farmland.(Nerima City, Tokyo)

흔한 장면 - 많은 시민들은 도시 농지의 소유자로부터 농업을 배운다. (도쿄의 네리마)



▲ Drill scene - Pavilion turns into a cafeteria during a soup-run drill. (Nerima City, Tokyo)

훈련 장면 - 스프를 먹을 때는 임시 구조물이 카페로 변함. (도쿄의 네리마)



○ Honey Factory Micro-architecture for urban beekeeping

Francesco Faccin | Designer

Francesco Faccin was born in Milan in 1977. In 2003, after his graduation at "Istituto Europeo di Design", starts working in the design studio of Enzo Mari. In the meanwhile he collaborates as an independent designer with Italian and foreign firms. From 2004 onward he develops small series self-producible projects in collaboration with highly skilled artisans. In the same period works with Francesco Rivolta, modeler and lute maker, improving his knowledge in working with wood. In 2007 takes part in "Salone Satellite" for his first time. In 2009 he joins up with Michele De Lucchi, working at his side for five years. In 2010 he participates to Salone Satellite together with Alvaro Catalan de Ocón and they are both rewarded with the Design Report Award. In the same year Faccin starts to teach Industrial Design at NABA in Milan with the "Projects not Objects" class and he goes ahead with his teaching activity in different universities through Italy and Europe. In 2012 the NGO LiveinSlums asks him to design the furniture of the Why Not Academy school in the Nairobi slum, besides designing the interiors of the "28 posti" restaurant in Milan, commissioned by the same NGO. The next year Faccin is invited as affiliated fellow to spend 4 months inside the prestigious American Academy in Rome, where he carries out a research in order to map the craft producing sector of the capital city centre. In the same year he exhibits at the Triennale in Milan a collection of objects selected in Nairobi slums, the exhibition is called "Made in Slums", curated by Fulvio Irace. During Expo 2015, he is commissioned by Marva Griffin to deal with a project about the subject "feeding the Planet"; for which reason "Honey Factory" appears, a small architecture for the urban beekeeping, still operating in the garden of the Triennale in Milan. Now he is currently working on a regular basis with several Italian and foreign firms, while his work has been published several times by the most important national and international magazines.



○ Synopsis

Honey factory is a spot for pro-duc-ing honey, which contains the traditional beehives, to preserve the necessary equipment of its processing. But most of all, it's an urban information point regarding the ancient and current bee keeping culture. It protects the hives from bad weather while keeping a constant temperature and optimal ventilation. The big "chimney" which is a clear sign of the project, helps to keeps the entrance of bees far possible from children and possible vandalism moves, and actually the so-called "flight step" is usually placed a few centimeters from the ground, but in this case it's 4.5 meters high. Furthermore, a glass door protects the beehives meanwhile still allows an observation from a very close distance of the en-coded movements and the mysterious "bee dancing". Honey factory will play a role of educating and allowing citizens to approach a complex and fascinating world of insects, observing them, listening to the bee buzz. Through a processing of materials, bees create a rich, comprehensive and sustainable food without reworking, comes directly from the producer to the consumer. A hive with its swarm has an area of "foraging" up to a radius of 3 km, a distance completely compatible with

a general urban park in our cities. It could be an actual center of the dissemination of food-sustainability culture, by giving courses, initiatives and demonstrations to the public, helping them to overcome the reluctance and prejudice against a very important insect for maintaining the biodiversity. "Honey Factory" is also about the new role of designer, instead of collaborating with entrepreneurs of a traditional category, who now has much more to do with a very different client, working in new fields which are contemporary and less explored. Actually it can be considered as a real micro architecture that leaves a mark in the urban landscape where it's placed. Thanks to the collaboration of Mauro Veca, the Milanese professional beekeeper and urban farmer, I was able to work starting from accurate and reliable information, which is a key condition for an experimental project but scientifically correct. Honey factory has been operating since 2015 in the park of the Triennale in Milan, carrying out educational activities and producing great urban honey. Furthermore, the Veterinary University of Milan is carrying out regular analysis of the quality of the environment by collecting samples of honey and bees.



○ 허니 팩토리: 도시 양봉을 위한 마이크로 아키텍처

프란체스코 팩신(Francesco Faccin) | 디자이너

프란체스코 팩신은 밀라노에서 1977년에 태어났다. 2003년 "이탈리아 유럽디자인대학"을 졸업한 후, 엔조 마리의 디자인 스튜디오에서 일을 시작했다. 또한 독립된 디자이너로서 이탈리아와 외국 기업들과 협업을 했다. 2004년부터 그는 자기생산가능한 프로젝트 시리즈를 고도로 훈련된 장인들과 개발하기 시작했다. 같은 기간 동안 그는 모형 및 루트(Lute)제작자인 프란체스코 리볼타와 일을 했다. 그러면서 프란체스코는 나무 작업에서의 지식을 향상시킬 수 있었다. 2007년에는 "살로네 사텔리테"에 처음으로 참가했고, 2009년에는 미켈레 데 루치와 5년간 작업을 했다. 2010년도에 그는 "살로네 사텔리테"에 알바로 카탈란과 함께 참여했고, 그 둘은 모두 디자인상(Design Report Award)을 수상하게 되었다. 같은 해에, 프란체스코는 밀라노의 NABA에서 "물건이 아니라 프로젝트(Projects not Objects)"란 수업으로 산업 디자인을 가르치기 시작했다. 그리고 이탈리아와 유럽을 통한 다른 대학들에서 교육 활동을 추진하기 시작했다. 2012년에 "LiveinSlums"라는 NGO단체가 그에게 나이로비 빈민가의 "Why Not Academy school"의 가구디자인과 같은 NGO단체에 의해 위탁된 밀라노 레스토랑인 "28 posti"의 인테리어를 요청하였다. 그 다음해에 로마에 있는 명문 미국 학교에서 4개월간 제후교원으로서 초대받았다. 그곳에서 그는 수도 중심의 공예 생산 부문에 대한 지도를 그리기 위한 연구를 수행하였다. 같은 해에 그는 트리엔날레 밀라노에서, 나이로비 빈민가에서 선택된 작품의 컬렉션을 전시했습니다. 그 전시는 "빈민가에서 만들어진"이란 주제로 불리었고, 풀비오 이레이스(Fulvio Irace)에 의해 권장되었다. 2015 엑스포 전시회 기간 동안 그는 말바 그리핀(Marva Griffin)에 의해 "지구를 먹이자"라는 주제에 대한 프로젝트를 의뢰받았다. 이러한 연유로, 여전히 트리엔날레 밀라노의 정원에서 작동되고 있는, 도시 양봉을 위한 작은 건축물 "허니 팩토리"가 탄생했다. 현재 그는 정기적으로 몇몇 이탈리아 및 외국 기업들과 일하고 있으며, 그의 작업은 저명한 국내 및 국제 잡지에 출판되었다.

○ 개요

허니 팩토리는 꿀을 생산하기 위한 공간이다. 그곳은 벌꿀 제조과정을 위해 필요한 장치를 보존하기 위한 장치로서 전통적인 벌집을 갖고 있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허니 팩토리는 고대와 현재의 양봉 문화에 관한 도시의 정보거점이다. 허니 팩토리는 벌집에 일정한 온도 및 최적의 환기를 유지시켜주면서, 나쁜 날씨로부터 지켜준다. 그 프로젝트의 표식인 큰 "꿀독"은 꿀벌이 들어가는 입구를 아이들과 기물 파손의 위험으로부터 멀어질 수 있도록 돕는다. 실제 "비행 스텝"은 대개 땅에서부터 몇 센티미터 떨어져 있으나, 이번 경우에는 비행 스텝이 4.5미터 높이 정도가 된다. 또한, 유리문은 벌집을 지켜주고, 매우 가까운 거리에서 벌들의 암호화된 움직임과 신비스러운 "꿀벌 댄스"를 볼 수 있도록 해준다. 허니 팩토리는 시민들이 복잡하고 매력적인 곤충의 세계(벌에 관한 관찰 및 소리를 듣는 것 등)에 접근할 수 있도록 교육해주는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재로 가공을 통해, 벌들은 반복되는 작업 없이 풍족하고 포괄적이고 지속가능한 음식을 만들고, 이는 생산자로부터 소비자에게 직접적으로 이어지게 된다. 그 벌떼의 벌집은 반경 3km까지의 "수령 채집" 지역을 갖고 있고, 그 거리는 우

리 도시들의 일반 도시 공원과 완벽히 호환되는 거리이다. 이러한 사실은 강의 제공 및 대중에게 이러한 것들을 설명함으로써 그들이 생물다양성을 유지하기 위한 중요한 곤충에 대한 거부감과 선입견을 극복하는 것을 도우면서 음식 지속 문화 보급의 실제 중심이 될 수 있다. 이러한 부분에서 볼 때, "허니 팩토리"는 전통적인 범위 내에서 기업가들과 협력하는 대신 디자이너들이 갖게 되는 새로운 역할이 된다. 디자이너들은 이제 기존 고객과는 매우 다른 새로 생겨나는 분야 혹은 아직 탐험되지 않은 분야의 고객들과 연관된다. 실제로, 허니 팩토리는 그것이 위치한 도시 풍경에서 진짜 마이크로 구조물로 여겨진다. 밀라노의 전문 양봉가이자 도시 농부인 마우로 베카(Mauro Veca)와의 협업 덕분에, 나는 정확한 정보를 갖고 일할 수 있었다. 정확한 정보를 갖는 것은 과학적으로 올바른 실험 프로젝트를 하기 위한 핵심 조건이다. 허니 팩토리는 2015년 이후 트리엔날레 밀라노의 공원에서 운영되어왔다. 허니 팩토리는 교육적 활동을 수행했고, 매우 좋은 도시 꿀을 생산해냈다. 또한, 밀라노의 베테리너리 대학(Veterinary Univ.)은 벌꿀과 벌의 표본을 수집함으로써 환경에 대한 질과 관련하여 정기적인 분석을 수행한다.



○ 한국의 도시농업과 토종종자

안완식 | 토종 씨드림 상임대표

토종 씨드림 상임대표 President, TOZONGSEEDREAM

한국토종연구회 고문 Advisor, Korean Academy of Native Species

○ 개요

한국에 있어서 도시농업의 시작은 1990년대 초중반의 일이지만 실제로 도시 농업과 거의 같은 형태로 이미 그보다 몇 십 년 전에 이미 동리나, 하천변, 산 자락 등의 자투리땅을 이용하여 채소를 가꾸고 꽃을 심는 텃밭 가꾸기가 이루어져왔다. 한국은 6.25 한국전쟁 이후 피폐하였던 경제 사회를 재건하기 위한 급속한 산업발전 열풍으로 한때 텃밭활동이 주춤하였다. 90년대에 이르러 경제가 살아나고 삶의 여유가 생기면서 삶의 질을 생각하게 되었고, 특히 오염되지 않은 건강하고 안전한 먹을거리를 생각하게 되면서 도시민들도 도시 내의 자투리땅을 빌어 다시 도시농업 형태로 태어나게 되었다.

한국의 도시농업은 식량이나 안전한 먹을거리의 확보만의 차원을 떠나서 다양한 방향으로 발전하고 있다. 도시 환경 보전 운동, 도시사회의 공동체복원, 은퇴세대의 일거리, 심신을 위한 의료보조 요법, 생명존중 인성함양교육, 도농상생, 지역경제 활성화, 사회복지 및 여가 활용 등의 다양한 영역이다.

도시 농업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왜 토종을 좋아할까? 한국인 특유의 신토불이 정신과 민족주의 사상이 기본적으로 배어있기 때문이다. 몸과 이 땅은 하나요, 둘이 아니다. 즉 수천 년을 한반도에서 살아온 토종을 먹고 살아온 우리의 선조가 물려준 우리의 몸 역시 이 땅에서 나는 토종을 먹고사는 것이 몸과 마음의 건강을 지키는 데 좋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이다. 60-70년대 60% 이상이었던 농업 인구가 5-6%정도로 낮아질 정도로 도시로 집중된 결과 고향을 등진 많은 도시인들이 아련한 옛것에 대한 향수와 맛을 생각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제 급속한 경제발전으로 찰살계 된 지금, 보다 오래 건강하게 살고 싶은 욕망은 무엇보다도 내가 가꾸는 안전한 먹을거리를 원하게 되고 이를 위한 농약과 좋지 않은 물질을 사용 하지 않는 유기농사 하기에 알맞은 토종을 선호하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GMO나 시판종인 종자에 묻은 농약까지도 싫어하게 되었으며 더 나아가 내손으로 받는 씨앗을 나눔 하는 즐거움을 느끼게 되었다. 토종은 신기술로 개량되지 않았고 농민의 손에서 선발되고 씨를 받아서 내려온 종자이기 때문에 유기농업과 거의 같은 전통농업방법으로 농사를 지어왔으며, 농약은 주지 않고, 퇴비나 인분뇨에 의한 농사가 어울리고 잘되므로 자연히 토종을 선호할 수밖에 없다.

이러한 토종을 필요로 하는 도시민이나 귀농하는 사람들을 위하여 자생적으로 2008년에 생긴 비영리 민간단체가 토종 씨드림이다. 12,000여 온라인 회원을 비롯하여 250여 후원회원의 도움으로 운영된다. 전국에서 토종을 수집하고, 종자를 증식하며, 4,000여점을 씨드림 종자은행에 보존하고 있다. 해마다 3,000여 회원에게 무상으로 나눔하며 회원들 간에 수시로 교환한다. 또 토종학교는 매년 30명에 대하여 교육한다.

토종은 종자은행 속에서 보존되는 것보다는 농민과 함께 자연환경 속에서 진화하면서 보존되어야 하는 바 도시농업인들이 바로 귀한 책임이 있는 토종지킴이가 되는 셈이다.



○ Korea's Urban Agriculture And Native Seeds

Wan-Sik Ahn | President, TOZONG SEEDREAM

Advisor, Korean Academy of Native Species

Chairman, Biodiversity Committee, Slow food Korea

○ Synopsis

Urban agriculture in Korea did not start until the early/mid 1990s, but kitchen garden cultivating in the similar form as urban agriculture, where vegetables are cultivated or flowers were planted, has been done for decades prior to urban agriculture by utilizing the piece of land in villages, near streams or on hillside. Due to the rapid industrial development fever to reconstruct impoverished economic society since the Korean War, kitchen gardening activities in Korea had faltered for some time. As the economy revived and life became more abundant in the 90s, people started thinking about the quality of life, healthy and safe uncontaminated food in particular, urban residents started utilizing small pieces of land within the city and cultivating in the form of urban agriculture.

Korea's urban agriculture is developing in various directions, aside from the acquisition of safe food. It covers various areas such as urban environment preservation movement, restoration of community in urban society, work for retired generation, medical assistant therapy for body and mind, character-cultivating education for the respect of life, urban-rural coexistence, vitalization of regional economy, social welfare and utilization of leisure time.

Why do people that participate in urban agriculture like native things? Basically, the reason arises from Korea's unique belief that the domestic products are the best and nationalism. Our body and this land is one, not two. In other words, the bodies that our ancestors, who lived on Korean Peninsula for thousands of years and ate native food, would be kept healthier if we ate native food grown in this land. As a result of concentrating to the city, which lead to the decrease in agricultural population from over 60% in 60-70s to 5-6%, many urban residents that turned away from their hometown would reminisce the nostalgia and flavor of the vague past.

Now that the life became more abundant due to rapid economic development, the desire to live long and healthy seeks for safe food that is cultivated by oneself, which leads to the preference in native seeds that are suitable for organic farming without pesticides. Therefore, people started avoiding GMO or even

the pesticides on the seed in the market, and furthermore experience the joy in sharing the seeds that were acquired through their own hands. Native seeds are not improved by new technology but are selected and gathered by farmers, and therefore they have been cultivated through traditional agricultural methods that are almost identical to organic farming; and since they are well-cultivated by compost, barnyard manure and human excrement without pesticides, people naturally prefer native seeds.

The non-profit private organization, autonomously established in 2008, for urban residents or people returning to farming that are in need of native seeds is Seedream. It is operated with the help of over 12,000 members online and 250 sponsors. It collects native seeds from all over the country, increases seeds, and preserves over 4,000 kinds at Seedream Seed Bank. It shares the seeds with over 3,000 members each year for free, and members exchange their seeds among themselves frequently. Also, the Native Seed School offers education to 30 people each year.

As native seeds should be preserved with farmers in natural environment through evolution rather than being preserved in a seed bank, urban farmers are the guard of native seeds with valuable responsibility.



The 5th Seoul Urban Agriculture EXPO
International Conference 2016

Session2

함께 | Together

키워드

공동체, 어린이, 사회적 약자,
교류와 연대

Community, children, socially
disadvantaged, networking



진행자 유은하 (한국)
Eunha Yoo (Korea)

> 진행자 유은하 (한국)

농촌진흥청 국립원예특작과학원 도시농업과 농업연구관
서울대학교 농업생명과학대학 원예학과에서 학사, 석사, 박사학위를
취득하고 농촌진흥청 국립원예특작과학원에서 도시민의 농업활동
증진 및 농산물 소비촉진을 위해 채소와 화훼의 재배생리 및
활용방법에 관한 연구를 수행해 왔다. 2011년부터 2014년까지는
미국 조지아주 UGA Cooperative Extension에서 Master Naturalist,
Master Gardener 과정을 수료하고, 활동한 바 있다. 현재
국립원예특작과학원 도시농업과에서 활성화된 한국형 도시텃밭에
대한 꿈을 갖고 수요자 맞춤형 기능성 텃밭 모델개발 및 시민 참여형
개방형 실험실인 도시텃밭 리빙랩 연구를 수행 중이다.

> Eun Ha Yoo (Korea)

Eun Ha Yoo acquired bachelor's, master's and doctorate
degrees at the Department of Horticulture in College of
Agriculture and Life Sciences of Seoul National University,
and has been conducting studies on the physiology of
cultivation and utilization of vegetables and flowers at
National Institute of Horticultural and Herbal Science of
Rural Development Administration to enhance agricultural
activities of urban residents and promote agricultural
product consumption. From 2011 to 2014, she completed
Master Naturalist and Master Gardener courses and worked
at UGA Cooperative Extension in Georgia, U.S. With the
dream of Korean urban kitchen garden, which is vitalized by
Urban Agriculture Research Division at National Institute of
Horticultural and Herbal Science, she's currently working
on the development of consumer-customized functional
kitchen garden model and resident-participating open urban
kitchen garden, Living Lab.

> 발표자

미국 USA	사라 엡스테인 브루클린 식물원의 어린이 정원 프로그램	Sara Epstein Children's Garden Programs at Brooklyn Botanic Garden
프랑스 France	마리 디하에네 파리 도시농업운동의 대두	Marie Dehaene The rise of the Paris urban agriculture movement
대만 Taiwan	첸 하이 대만 도시농업 맥락 속 게릴라 정신	Chen Hai Guerrilla Spirit in Taiwan Urban Farming Context
한국 Korea	노순호 도시농업과 발달장애인의 사회소통	Noh Soon-ho Social communication of urban agriculture and developmental disabilities



Children's Garden Programs at Brooklyn Botanic Garden

Sara Epstein has been a part of the education team at Brooklyn Botanic Garden since 2005. She coordinates Project Green Reach, BBG's outreach program to Title I elementary and middle schools in Brooklyn. She holds a BA in Environmental Studies from Oberlin College, and a Horticulture Certificate and Master Composter certification from Brooklyn Botanic Garden. Her most formative education comes from her ongoing learning and growing with plants, teachers, and students in classrooms and gardens.

Synopsis

Brooklyn Botanic Garden's (BBG) Children's Garden (CG) was created in 1914, just two years after the Garden opened. It is the first ever children's garden established in a botanical garden, and the oldest continuously operating in the world. Of BBG's 52 acres (21 hectares), a full acre (.4 hectare) is dedicated to the Children's Garden.

In 1914, Brooklyn was transitioning from a rural to an industrial society and the youngest generation would not have the opportunity to learn about nature and food production by working alongside their parents. As founding educator Ellen Eddy Shaw put it, the CG was created as "a living opportunity for a child to learn lessons of nurture and observe how nature looks out for herself."

The once-revolutionary idea that a scientific institution could provide hands-on education for children has become an integral, and much imitated, part of BBG's mission. In fact, the key educational tenet that drives our CG programming is that children learn by doing. Lessons in botany, ecology, and healthy eating are learned hands-on, in the field, and in the kitchen. Students work together on their plots, as well as tend communal areas, fostering citizenship and cooperation. Older, more experienced students help younger ones, developing responsibility and leadership skills.

Today, BBG's CG programs operate in all four seasons and serve over 1,000 children and teens ages 2 - 18 annually. Programs include Trees & Saplings, for 2- and 3-year-olds with a caregiver, Seeds, for 4- and 5-year-olds, and City Farmers, for 6- to 12-year-olds.

In 1990, the Junior Botanist/Plant Investigator program, for 9- to 13-year-olds, was developed to provide access to students who would otherwise not be able to participate in CG programs. Barriers include cost, transportation, language, and lack of access to information (88% of participants have parents who are recent immigrants to the US; 20% are themselves recent immigrants.) Students are nominated by their teachers who have participated in our school outreach program, Project Green



The Children's Garden (#2 on map of Brooklyn Botanic Garden) is a full acre (.4 hectare) dedicated to the 1,000 children and teens enrolled in programs annually.

어린이정원(CG) (브록클린 식물원 지도의 2번 구역)은 1에이커(0.4헥타르=약 1,224평)이며 매년 1,000명의 아이들과 청소년들에게 교육을 제공한다.



Reach. Twenty-four students are selected for the program each summer, and are given a full scholarship that includes door-to-door transportation.

The Garden Apprentice Program (GAP) is the Garden's youth development program for 55 high school students ages 13 - 18. GAP students gain skills and knowledge through structured on-the-job training and mentorship. The program builds a career ladder to support the next generation of environmental leaders. Several GAP graduates are currently Instructors for CG programs.

In addition, the Children's Garden supports the Brooklyn Academy of Science and the Environment (BBG's partner High School) Garden Crew, a team of 30 young people who grow salad to share with the entire school on two celebratory days in spring and fall in partnership with the New York City Department of Education's Garden to Café program.

Over 100 years after its founding, BBG's Children's Garden remains relevant and important in our society. We are still providing our youngest generation the opportunity to experience nature and grow food first-hand. As they learn by doing, they become stewards for the environment and teachers of the next generation. BBG's Children's Garden programs make it possible for communities to connect and for participants to work and learn together, sharing the wonders of the natural world and sharing the bounty of the harvest.



◀ Brooklyn Botanic Garden's Children's Garden opened in 1914 and is the first ever established in a botanical garden and is the oldest continuously operating Children's Garden in the world

▲ 브록클린 식물원의 어린이정원(CG)은 1914년에 식물원 가운데 세계에서 가장 최초로 설립되었고, 세계에서 가장 오랫동안 지속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브록클린 식물원의 어린이 정원 프로그램

사라 엡스테인(Sara Epstein)은 2005년부터 브록클린 식물원 교육팀의 일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그녀는 프로젝트 그린 리치(Green Reach), 타이틀1을 주제로 한 브록클린의 초등 및 중학교에 대한 브록클린 식물원의 아웃리치 프로그램을 조정한다. 사라 엡스테인은 오벌린 대학에서 환경 연구 학사 학위, 원예학 자격증 및 브록클린 식물원의 퇴비 마스터 자격증을 취득했다. 그녀는 지속적인 학습 그리고 수업 시간 및 정원에서 선생님들 및 학생들과 식물을 키우는 것을 통해 좋은 교육을 받을 수 있었다.

개요

브록클린 식물원(BBG)의 어린이정원(CG)은 식물원개원 2년 후인 1914년도에 만들어졌다. 식물원에서 설립된 최초이자 가장 오랫동안 운영되고 있는 어린이정원이다. 브록클린 식물원(BBG)의 면적은 총 52에이커(21헥타르=약 63,500평)이며 이 중, 1에이커(0.4헥타르=약 1,224평)가 어린이정원이다.

1914년에 브록클린은 농촌에서 산업 사회로 변천해가고 있었다. 그리고 당시 가장 어린 세대는 부모와 함께 일을 했기 때문에, 자연과 음식 생산에 관해 배울 기회를 갖지 못했다. 창립 교육자 엘렌 에디 쇼가 말했듯이, 어린이정원(CG)은 "아이들에게 자연이 어떻게 자신을 양성하고 관찰하는지에 관한 교훈을 줄 수 있는 살아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이유로 만들어졌다.

과학연구소가 아이들을 위해 직접 교육을 제공할 수 있다는 한때 혁명적이었던 생각은 필수적이고 당연히 모방해야 하는 아이디어로 브록클린 식물원(BBG)의 사명이 되었다. 실제로 어린이정원(CG)을 이끄는 핵심은 경험을 통해 배운다는 것이다. 식물학, 생태학 그리고 건강한 식사에 관한 교육은 직접 및 실천 교육을 통해 그리고 주방 안에서 이루어진다. 학생들은 시민으로서 협력을 증진시키면서 공동의 지역에서 함께 일한다. 나이와 경험이 좀 더 많은 학생들은 젊은 학생들을 도와주며 이를 통해 책임감과 리더십 능력을 서로 발전시키게 된다.

오늘날 브록클린 식물원의 어린이정원프로그램은 사계절내내 진행되며 매년 1,000명 이상의 2세에서 18세인 아이들을 대상으로 운영된다. 보충자가 동반된 2,3세 아기를 위해서는 나무 모옥 프로그램이, 4,5세 아이들을 위해서는 씨 뿌리는(종묘) 프로그램이, 그리고 6세에서 12세 아이들에게는 도시 농부라는 프로그램이 진행된다.



▲ The Garden Apprentice Program is BBG's youth development program whereby a young person gains skills and knowledge through structured on-the-job training and mentorship. The program builds a career ladder to support the next generation of environmental leaders.

정원 실습생 프로그램(GAP)은 브록클린 식물원(BBG)의 청소년 개발 프로그램이다. 그곳에서 청소년들은, 구조화된 직접 훈련과 멘토 지도를 통해 기술과 지식을 얻어하게 된다. 그 프로그램은 다음 세대 환경지도자들을 지원하기 위한 직업 사다리를 만들게 된다.

1990년에 9세에서 13세 아이들을 위한 주니어 식물학자/식물 조사관 프로그램이 개발되었다. 참가비용, 접근성, 언어, 정보 부족 등의 장벽으로 인해 어린이정원(CG)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없는 학생들을 위해 개발된 것이다.(프로그램 참여자의 88퍼센트는 최근 미국에 이민온 부모가 있는 2세대들이었고, 20퍼센트는 스스로가 이민자였다). 학생들은 프로젝트 그린 리치(Green Reach)라는 지역학교연계 프로그램에 참여한 선생님들에 의해 선발된다. 24명의 학생이 매해 여름에 프로그램에 선정되고, 교통비가 포함된 전액 장학금을 제공받는다.

정원 실습생 프로그램(GAP)은 13세에서 18세의 55명의 고등학생들을 위한 식물원의 청소년 발전 프로그램이다. 정원 실습생 프로그램(GAP)의 학생들은 구조화된 직업 실습 훈련 및 멘토 지도를 통해 기술과 지식을 얻는다. 그 프로그램은 다음 세대의 환경지도자들을 지원하기 위해 직업 사다리를 만든다. 몇몇 정원 실습생 프로그램 졸업자들은 현재 어린이정원(CG)프로그램의 교육자로 일하고 있다.

추가로, 어린이정원(CG)은 과학과 환경의 브록클린 학교(브록클린 식물원의 파트너 고등학교)를 지원한다. 그곳에는 봄과 가을 두 축제일에 전체 학교와 함께 공유하기 위한 샐라드를 재배하는 30명의 젊은 직원들이 있다. 이는 뉴욕시의 정원에서 카페까지 교육프로그램 부서와의 협업을 통해 이루어진다.

브록클린 식물원이 설립한 지 약 100년 이후, 식물원의 어린이정원(CG)은 사회 내에서 적절하고 중요한 부분으로 자리 잡았다. 우리는 아직도 어린이들에게 자연을 경험하고 음식을 재배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을 가장 중요한 것으로 여긴다. 그들은 경험해봄으로써 배우기 때문에, 다음 세대의 환경과 선생들을 위한 청지기들이 될 것이다. 브록클린 식물원의 어린이정원(CG) 프로그램은 지역 공동체들이 서로 연결되어 참석자들을 위해 배움의 기회를 제공하는 것을 지원하고, 자연 세계의 경이로움과 수확의 풍성함을 공유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 Children and teens harvest over 4,000 pounds (1,800kg) of produce from the Children's Garden annually.

아이들과 청소년들은 매년 아이들의 정원에서 4,000파운드(1,800킬로그램)이상의 작물을 수확한다.



◀ In all four seasons, children and teens work together to grow, harvest and prepare vegetables. Lessons in botany, ecology, and healthy eating are learned hands-on, in the field, and in the kitchen.

사계절 모두, 아이들과 청소년들은 함께 일하면서 식물을 재배, 수확 및 준비한다. 식물학, 생태학 그리고 건강한 식사에 대한 수업은 직접 밭과 주방에서 이뤄진다.



▲ Realimenter massena: Realimenter massena는 재창조 파리 대회에서 음식과 라이프스타일에 대한 우수 프로젝트(하텔 팀 : Team Hertel)

○ The rise of the Paris urban agriculture movement

Marie Dehaene is a Paris based urban agriculture consultant with a background in landscape architecture. She splits her time between consulting, project management and research about building-integrated agriculture. Her work has led her to travel to the USA, Canada and China.

○ Synopsis

Cultivating Paris rooftops and walls

Paris is currently home to a few farms but the urban agriculture movement has been growing very fast since the early 2010' and has gotten recently both a lot of media attention and political support.

In 2003 the City of Paris set up a program intended to support the creation of community gardens. These collective gardens, assigned to local associations, allow Parisians to come together and practise their gardening skills. A code of management known as the Charte Main Verte assists the associations in managing their projects. Today there are more than a hundred community gardens in Paris.

Given the density of the city (about 22,000 inh/km²) and therefore the pressure for land, most of the urban agriculture projects target roofs and walls. Paris. As an illustration, in 2014 the Mayor of Paris committed into an ambitious program: greening 100 hectares of roofs and walls by 2020, specifying a third of it will have to be edible plants.

In order to achieve this goal in 2016, the City of Paris launched the «Parisculteurs» call for projects. This initiative calls out to gardeners, landscape designers, urban farmers, entrepreneurs, startups, civil society, architects and artists from around the world. The overall initiative will focus on 47 sites located across Paris (roofs, walls, sites at ground level or below) - sites which will be made available to green innovators for the development of urban agriculture and green space projects. Aeroponics, aquaponics, hydroponics, permaculture, orchards, mushroom cultivation, above or below ground, edible walls, vegetable roofs,

climbing and descending plants: all are options available to the "Parisculteurs" who may propose techniques involving any and all forms of urban farming.

This competition reflects the variety of initiatives already happening in Paris: they follow different objectives (community-oriented, commercial, experimental,...), use different growing techniques (soil built recycling city organic waste following biomimicry principles, hydroponic systems, aquaponic systems, creation of groundwater tables on roofs,...) and spread at different scales. Whether they are run by organizations, public agencies or private companies most of them serve the community by offering training or education program and sometimes the employment of people on the path to integration

Pictures :

Jardinsurtoit : « Le Jardin sur le toit » : community garden in the XXème arrondissement of Paris (credit Marie Dehaene)

Cité de la Mode : Living roof project on top of the Cité de la Mode et du Design by Vergers Urbains and Babylone (credit Marie Dehaene)

Topager_doisneau : Therapeutic garden on top of the Robert Doisneau center by Topager (credit Topager)

Realimenter_massena : Réalimenter Masséna, winning project about food and lifestyle from the Réinventer Paris competition (credit team Hertel)

○ 파리 도시농업운동의 대두

마리 디하에네(Marie Dehaene)는 조경을 전공하고 파리를 기반으로 활동하고 있는 도시 농업 컨설턴트이다. 컨설팅, 프로젝트 관리 및 건설 통합 농업에 대한 연구를 하고 있으며, 미국, 캐나다 그리고 중국에서도 활동하고 있다.



○ 개요

파리의 지붕과 건물벽에서 농사짓기

파리에는 몇 개의 농장이 있는데 2010년대 이후 도시 농업 운동이 미디어의 주목과 정치적 지원을 받으며 매우 빠르게 성장했다.

2003년 파리는 공동체 정원 제작을 지원 프로그램을 만들었다. 지역 협회들에게 양도된 공동체 정원들은 시민들이 와서 그들의 정원 기술을 실습할 수 있도록 허용해 준다. 녹색순환장(Charter Main Verte)로 알려진 관리 규정은 그들의 프로젝트를 관리하는 협회들을 지원한다. 오늘날 파리에는 100개 이상의 공동체 정원이 존재한다.

약 22,000 inh/km²인 도시의 밀도와 땅에 대한 압력을 고려할 때, 대부분의 도시 농업 프로젝트는 지붕과 건물벽을 중심으로 한다. 예를 들어 2014년에 파리 시장이 야심차게 집중했던 프로그램은 2020년까지 100헥타르의 지붕과 건물벽들을 녹지화(Greening)시키는 것이다. 또한, 녹지화 된 부분들 중 3분의 1을 식용작물로 재배하는 것을 명시하고 있다.

2016년에 이 목표를 성취하기 위해서 파리는 "파리 컬처스"로 불리는 프로젝트를 착수했다. 본 사업은 전 세계의 정원사, 조경 디자이너, 도시 농부, 기업가, 신생기업, 시민사회, 건축가들 및 예술가들을 불러 모은다. 전체 사업에 대한 내용은 파리에 있는 47개 장소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다(지상층 혹은 그 이하에 있는 지붕, 벽, 장소들). 그 47개의 장소들은 도시 농업 및 녹색 장소 프로젝트 개발을 위해 녹지화를 추진하는 사람들에게 이용가능해질 것이다. 수경재배(水氣耕栽培), 청정재배, 영속농업, 과수원, 버섯 재배, 땅 위아래, 식용 벽, 채소 지붕, 기어오르고 내려오는 식물: "파리 컬처스"는 도시 농업의 어떤 형태도 제한이 가능하며, 위 항목들은 "파리 컬처스"에서 사용가능한 옵션이다.

이런 풍경은 이미 파리에서 일어나고 있는 다양한 것들을 반영한다. 그것들은 다른 목표들을 갖고 있고(공동체 중심, 상업용도, 실험용도 등), 다른 재배 기술을 사용하고 있으며(생체모방원칙을 따르는 흙으로 만들어진 재활용 도시 유기 폐기물, 수경 재배 시스템, 지붕 위의 지하수 테이블의 제작 등), 여러 스케일로 진행된다. 이러한 것들이 협회, 공공 기관 및 사기업 등 어떤 주체에 의해 운영 되든 간에, 대부분은 교육 및 교육훈련 제공 그리고 고용 등의 과정을 통해 공동체에 도움을 준다.



▲ Cité de la Mode: Cité de la Mode et du의 상단에서 진행된 살아있는 지붕 프로젝트, 버섯 알바인즈 및 바빌론(Vergers Urbains and Babylone)에 의해 설계됨 (마리 디하에네 : Marie Dehaene)



▲ 토페이저 도이스네우(Topager doisneau) : 로버트 도이스네우 센터 옥상의 치료 정원(토페이저 : Topager)



▲ 옥상 정원(Jardinsurtoit) : <리 자르덴 수 르 트와> 파리 XXème구의 공동체 정원 (마리 디하에네 : Marie Dehaene)



○ Guerrilla Spirit in Taiwan Urban Farming Context

Chen Hai

Bachelor of Science in Agriculture, Dept. of Horticulture, National Taiwan University (2006/9-2010/6)
Master of Landscape Architecture, Dept. of Landscape Architecture, University of Washington (2012/9-2014/4)
Teaching Assistant, Permaculture Class (2010/12-2011/6)
Intern Worker, Cascade Edible Landscape (2013/3-6)
Technician, Department of Economic Development, Taipei City Government (2015/3- now)

○ Synopsis

Although Taiwan was founded on agriculture, urban farming is a relatively new issue in these two decades. Back to 1998, the policy of two-day weekend opened a new era for leisure industry. Since then, allotment garden and leisure farm have started to boom in suburban area. More and more people in the city want to have a piece of land and connect with nature. Until 2008, Mr. Young, who was arrested in 2004 because of public danger crime by putting "rice bomb" to address the problems of joining in WTO, asked a question at presidential debate: "Could we farm in front of the Office of the president?" This question triggered off a new journey for urban farming.

Urban farming is brought up into public realm, from balcony to public space, from guerrilla gardening to policy making. Community college and build-environment profession played an important role in this movement, such as the farming class in Yougho community college, the farmer's market in Beitou area and a series of community garden built in Taipei beautiful era in 2010. At the same time, food safety issues and direct origin trading also got attention from citizen. Farmers markets, family cooking class, online shopping for fresh food, even ready-to-cook-cut-vegi-pack, are becoming an emerging industry.

After bunch of advocacy, in 2015, Taipei city government launched the "farmcity" policy which hopes to turn Taipei into a farmable city. By first and foremost, it starts with turning public spaces into community gardens as well as building gardens in schools. The ultimate goals are bringing "agri-culture" back into city and to our children, connecting farmers and city people, and finally, making Taipei a sustainable city.



▲ great unity x little garden @ Tatung Elementary School, Taichung
위대한 통일 x 작은 정원 @ 다통 초등학교, 타이중현

○ 대만 도시농업 맥락 속 게릴라 정신

첸 하이(Chen Hai)

원예학부 농업 학사, 국립 타이완 대학교(2006/9~2010/6)
조경학부 조경 석사, 워싱턴 대학교(2012/9~2014/4)
'영속 농업' 수업 조교 (2010/12~2011/6)
인턴, 캐스캐이드 에더블 랜드스케이프 회사(2013/3-6)
기술자, 경제학부, 타이베이시 정부(2015/3~Current)

○ 개요

대만은 농업에 기반한 국가이지만, 최근 20년간을 볼 때는 도시 농업은 상대적으로 새로운 주제이다. 1998년을 돌아보면, 주 이를 휴일 제도 설립은 레저 산업의 새로운 시대를 열었다. 그 이후로, 할당 정원(allotment garden)과 여가 농장(leisure farm)은 교외에서 붐이 일기 시작했다. 도시의 더 많은 사람들이 땅의 일부를 소유하여 자연과 교류되길 원했다. 세계무역기구인 WTO에 가입하는 문제를 다루기 위해 도시락 폭탄을 투척한 위험한 범죄행위로 인해 2004~2008년까지 체포된 영씨는 대선 토론 때 한 가지 질문을 했다. "저희가 대통령의 사무실 앞쪽에서 농사를 지어도 될까요?" 이 질문은 도시 농업의 새로운 여정을 유발시켰다.

도시 농업은 발코니에서 공공장소로, 게릴라 정원 가구기에서 정책 결정으로 이어지며 공공의 영역으로 이동하기 시작했다. 지역 대학과 환경 전문분야 구축이 이러한 운동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다. 그러한 예는 영호 지역대학에서의 농업 수업과 베이도우 지역의 농부 시장 그리고 2010년도에 타이페이의 아름다운 지역에 지어진 공동체 정원을 나열할 수 있다. 동시에 안전한 먹거리 문제와 직접 원산지 무역 또한 시민들의 주목을 받았다. 농부들의 시장, 가족 요리 수업, 신선한 음식을 위한 온라인 쇼핑 그리고 심지어 반가공된 아채포장 세트 등이 새로운 산업으로 등장했다.

많은 토론이후 타이베이시 정부는 타이페이를 농사가 가능한 도시로 바꾸려는 일환으로 "농장 도시" 정책을 수립 했다. 무엇보다 먼저, "농장 도시(farmable city)" 정책을 통해 우선 학교에 정원을 만들고, 공공장소를 공동체 정원으로 바꾸기 시작했다. 이 정책의 궁극적인 목적은 도시와 우리 아이들에게로 다시 "농업" 체험을 가능하게끔 하고, 농부들과 도시사람들을 연결해주고, 마침내 타이페이를 지속가능한 도시로 만드는 것이다.



▲ permaculture x rooftop @ Winkler Partners Attorney, Taipei
영속 농업 x 옥상 @ 윈클러 파트너스 변호사, 타이페이



▲ Earth school @ Kaohsiung
지구 학교 @ 가오슝



▲ CianJia farm @ Hsinchu
시민지아 농장 @ 신주



Daan nursing home rooftop garden @ Taipei ▶
단 요양원 옥상 정원 @ 타이페이

○ 도시농업과 발달장애인의 사회소통

노순호 | 동구밭 대표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소셜벤처 동구밭을 운영하는 노순호입니다.

동구밭은 마을 어귀 작은 텃밭이라는 의미로 마을마다 우리의 미션이 담긴 작은 텃밭들이 하나씩 생겼으면 하는 바람으로 짓게 되었습니다. 2013년 처음 도시농업을 취미로 접하고 사회적기업 활동 동아리 'enactus'에서 도시농업을 통하여 발달장애인 관련 사회문제 해결을 미션으로 가진 프로젝트를 시작 하게 되었습니다. 강동구에서 5명의 발달장애인과 처음 인연을 맺어 텃밭을 함께 가꾸기 시작하였고, 채소를 심어 관계를 수확한다는 미션아래, 2014년 소셜벤처를 창업하여 도시농업을 활용한 발달장애인 사회성 교육 프로그램 동구밭 지기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서울시 17개 자치구 경기 3개지역 등 총 20개 지역에서 텃밭을 가꾸고 있습니다. 동구밭의 텃밭은 지역의 발달장애인과 또래 비장애인을 1:1로 매칭시킨 커뮤니티들이 주인공이 되어 가꾸고 있습니다.

○ 개요

발달장애인 당사자의 입장에서 시작 하는 텃밭 가꾸기

동구밭은 발달장애인이 사회에 필요한 구성원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목표로 2013년 8월부터 발달장애인과 또래의 비장애인이 텃밭을 통해 서로를 나누는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이러한 관계 맺음 프로그램은 발달장애인의 보호자 또는 사회의 필요에 의해서가 아닌 발달장애인 당사자의 입장에서 도출된 결과다. 보건복지부의 조사에서 알 수 있듯이 발달장애인의 친한 친구 수는 0명이 60.5%, 1명이 6.4% 순으로 나타났다. 즉 대부분의 발달장애인들은 외부 사람들과 접촉하지 않고 혼자 생활하여 친구를 만들기에 심각한 어려움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우리라는 개념을 그리고 공동체를 깨달아가는 도시농업

'우리' 또는 '사회'라는 개념을 자연스럽게 체득하는 비장애인과 달리 발달장애인은 사회성을 후천적인 교육을 통해 습득한다. 따라서 마치 비장애인이 외국어를 배우는 과정과 같이 발달장애인은 누군가와 관계를 맺고 소통을 하는 것이 서툴고 어렵다. 그러나 사회성을 지속적으로 학습하지 않으면 급격한 퇴행이 일어나게 되고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 농사는 하지만 모든 프로세스가 맞물려 결과물을 만들어 내는 작업이고, 문화이다. 문화(culture)의 어원 역시 경작 농업으로부터 유래되었다.

하나의 관심사를 공유하는 사람들이 모인 동구밭

도시농업을 하기에 참 좋은 시기를 맞은 것 같다. 도심 내 텃밭을 가꾸는 것을 매력적으로 느끼고 자원을 가진 사람들은 긍정적으로 검토한다. 우리 동구밭은 대중교통 활용 도보 5분 이내 거리의 공간에서 텃밭을 만들고 또는 공유하여 가꾼다.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목적이 크다. 참가하는 발달장애인들이 스스로 학습을 통하여 걸어 찾아 오게끔 하기 위함이다. 동구밭은 지역 내 발달장애인과 같은 관심사를 가진 또래 비장애인이 커뮤니티를 이루어 가꾼다. 그렇게 관계를 수확해 나간다.

늦음이 아닌 발달장애인의 삶의 변화

동구밭 지기프로그램에 참가 한 발달장애인이 새로운 친구를 1명 만나는 것은 1년이면 충분했다. 동구밭 지기프로그램을 14년부터 2년째 참가하는 발달장애인은 참가 전 약 18개월간 총 3차례나 직업을 옮겨 다녔는데 동구밭 지기프로그램 이후 구한 프랜차이즈 돈가스 가게에서 1년째 서빙 하는 일을 성공적으로 하고 있다.



○ Urban Agriculture and Social Communication of the Developmentally Disabled

Soon-ho Noh | CEO, Donggubat

Hello, my name is Soon-ho Noh, and I currently run a social venture, Donggubat.

'Donggubat' means a small vegetable garden at the edge of town, and was established with the hope that small gardens that embrace our mission would be created in every village. Since my first encounter with urban agriculture as a hobby in 2013, I started a project with the mission to solve social issues related to the people with developmental disabilities through urban agriculture at a social enterprise group 'enactus'. I first started working on a vegetable garden with 5 people with developmental disabilities in Gangdong-gu, and founded a social venture in 2014 for Donggubat Program, which is a sociability education program for the developmentally disabled using urban agriculture, with the mission to plant vegetables and cultivate relationships. We are currently tending vegetable gardens in total 20 areas, including 17 districts in Seoul and 3 regions in Gyeonggi area. Donggubat's vegetable gardens are tended by the communities, which match the developmentally disabled and their peers without disabilities in the area 1 to 1.

○ Synopsis

Starting a vegetable garden from the perspective of a person with developmental disabilities

With the goal to help the developmentally disabled become the members needed for society, Donggubat has been offering the exchange program between the developmentally disabled and their non-disabled peers through the vegetable garden since August 2013.

This relationship formation program is the result that derived from the people with developmental disabilities themselves, not from the need by their guardians or the society. As seen in the survey by the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60.5% of children with developmental disabilities responded that they had 0 close friend, followed by 6.4% that answered 1 close friend. In other words, most people with developmental disabilities are not in contact with others but live by themselves that they face severe difficulty in making friends.

Urban agriculture that teachers the idea of 'us' and community

Unlike the non-disabled people that naturally learn the idea of 'us' or 'society', people with developmental disabilities acquire sociality through education. Therefore, like learning a foreign language, people with developmental disabilities are poor at and have difficulties forming relationship with others and communicate with them. However, unless continuously learned, sociality rapidly regresses and brings irrevocable outcome. Farming is the process of generating outcome as all processes engage with one another, and also is a culture. The origin of the word 'culture' also originated from agriculture.

Donggubat, where people that share one interest are gathered

It is the perfect season for urban agriculture now. People that are attracted by cultivating a kitchen garden within the city and have the resource consider it positively. Donggubat creates or shares vegetable gardens at places that are within 5 minutes

by walk when using public transportation. The biggest goal is to enhance accessibility. It is to lead the participating people with developmental disabilities to find their ways to the garden through self-learning. Donggubat creates a community by the developmentally disabled and their non-disabled peers with same interest within the same area. Like that, they cultivate relationships.

Not lateness, but changes in the lives of the developmentally disabled

1 year was enough for one participant with developmental disabilities in Donggubat Program to meet 1 new friend. One participant with developmental disabilities that has been participating in Donggubat Program for 2 years since 2014 changed jobs 3 times in 18 months prior to the participation. But since the participation, this participant is successfully working at a franchise pork cutlet restaurant as a server over a year.





The 5th Seoul Urban Agriculture EXPO
International Conference 2016

Session3

라이프스타일 | Lifestyle

키워드

culture, wellbeing, change, daily life



진행자 이보은 (한국)
Lee bo-eun (Korea)

> 진행자 이보은 (한국)

여성환경연대 활동가로 문래도시텃밭과 홍대텃밭다리, 합정대륙텃밭을 만드는 프로젝트를 진행해 왔고 텃밭공동체 활동, 로컬채소브랜드 만들기, 동네부엌 만들기 등 삶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다양한 시민기획에 함께 하고 있다. 2012년부터 농부와 요리사, 수공예가가 함께 만들어 가는 작은시장 마르쉐@혜화동 운영팀 <마르쉐 친구들>의 멤버로 활동하고 있다. 주민생활협동조합 조직교육활동가, 여성환경연대 사무처장을 역임했으며 현재 여성환경연대 대안생활위원장을 맡고 있다.

> Moderator Lee bo-eun (Korea)

Women's Environmental Network, Project Coordinator / Marche@friends
Boeun Lee have organized variety of social projects to making a kitchen garden community, local crop as a brand and a community kitchen including Mullae urban garden, Hongdae bridge garden and Hapjeong land garden for sustainable lifestyle. Since 2012, she has been a member of the organ of Marche@Hye hwa-dong <Marche friend>, where is a small market making with the farmers, cooks and handcrafters. She had served as a Organization trainer at Neighbors' Cooperate and Secretary General at Women's Environmental Network.

> 발표자

싱가폴 Singapore	비훈 로 도시농부 - 모두가 농사 지을 권리	Bjorn Low Citizen Farmer - Empowering everyone to farm
중국(홍콩) China (Hongkong)	앤드류 추이 도시농업 3.0 - 지속가능한 라이프스타일로 변형하는 도시	Andrew Tsui Ka Urban Farming 3.0 - Transforming cities with sustainable lifestyle
호주 Australia	그린 딘 호주의 도시농업	Green Dean Urban Agriculture in Australia
한국 Korea	박정자 & 하미현 농부와 요리사가 만나는 장터	Park Jung-ja & Ha Mi hyun Marketplace where Farmers and Chefs Meet



EDIBLE GARDEN CITY

○ Citizen Farmer - Empowering everyone to farm

Bjorn Low | Edible Garden City Pte Ltd

Born and raised in tropical Singapore, Bjorn started his career as an online marketing specialist at the then BLUE Interactive, having completed his MBA prior to that. His stint in advertising brought him to London, where he worked on the global Debeers account as an Associate Business Director. It was during a particularly harsh winter that he realised something was missing in his life, and that working in the corporate sector was not something he wanted to continue doing. Bjorn quit his job, and for the next 3 years, travelled and worked on organic farms across Europe.

Having obtained a diploma in Biodynamic Agriculture in East Sussex, Bjorn returned back to Singapore with the dream of combining his knowledge of farming and his business training. In 2012, Edible Gardens LLP was started with the hopes of building urban farms to help Singapore tackle its food security challenges. Today, Edible Garden City Pte Ltd employs a team of 7 full time staff members and is carving out its own niche in a new industry sector in Singapore, having built more than 30 food gardens for hotels, schools, F&B

outlets, property developers and home gardens. We believe in educational initiatives to the general public, and to the youths, which we do so through public talks and workshops to educational institutions. In the span of 2 years, EGC has contributed to the growing discussions of urban farming and food security in Singapore, and raised awareness of the movement and of food issues to the younger generation. Edible Garden City is looking to expanding its operations in 2015, and move into commercial - scale herbs and vegetable production on rooftops in Singapore, seeking to blaze the trail to see Singapore as an Edible Garden City.

○ Synopsis

In the last four years we have been working towards building an industry around urban farming in Singapore. This journey has brought us from the the small home gardens on people's balcony to rooftops of 5* hotels and working with Asia's top 50 chefs we felt that we were on track to success. In 2015 with the launch of Open Farm community, a restaurant with a large vegetable garden managed by our team at Edible Garden City we brought urban farming to the central stage in Singapore and created an impact on the local culinary scene.

Deep down inside we all knew that something was missing. The work we have done in the last year was only accessible to a specific social class the rich who were able to afford eating at these fine dining establishment, we felt we have neglected the rest of the population to chase for a certain type of success.

For 2016 and beyond we want to refocus our effort to bring the knowledge and skills of farming back to the people. We feel that everyone is entitled to have the most basic knowledge in growing his or her own food. And with this intention we bring to you "Citizen Farmer" come hear as Bjorn Low Co-founder of Edible Garden City speak about how we are working towards empowering individuals with mental disabilities to work as urban farmers all the way to encapsulating food growing knowledge for our children.

○ 도시농부 - 모두가 농사 지을 권리

비혼 로(Bjorn Low) | 이더블가든시티 공동대표

싱가포르 열대지방에서 태어나고 자랐다. MBA를 마치고 블루 인터랙티브(BLUE Interactive)라는 곳에서 온라인 마케팅 전문가로 일을 시작했다. 영국 글로벌 드비어스 어카운트(global Debeers account)에서 협력사업 디렉터로 일했다. 그러나 삶에 무엇인가를 놓치고 있다는 것, 기업에서 일을 하는 것은 본인이 원하는 것이 아님을 깨달았다. 그래서 일을 그만두고, 3년간 유럽 전역에 있는 유기농업을 하는 농장에서 여행 및 경험을 쌓았다.

이스트 석시스(East Sussex)의 생물 역학 분야 학위 수여를 받았고, 농사에 대한 지식과 과거 직장에서의 경험을 통합하겠다는 꿈을 가지고 싱가포르로 돌아왔다. 2012년에 싱가포르 음식의 안전 문제 해결을 위한 도시 농장을 만들기 위해 이더블 가든LLP(Edible Gardens LLP)가 시작되었다. 현재, 이더블가든시티(Edible Garden City Pte Ltd)는 7명의 정규직원을 보유하고 있고, 싱가포르의 새로운 산업 분야의 하나로, 이 사업을 확장시켜가고 있다. 호텔, 학교, F&B 아웃렛, 부동산 개발업자 및 개인주택에 30개 이상의 정원을 만들었다. 일반인들과 청소년들 대상의 토론 및 교육, 워크샵이 효과적이라고 믿고 있으며, 지난 2년간 싱가포르의 도시농업 및 음식 안전관련 토론 문화가 성장하는데 기여했다. 그리고 젊은 세대에게 농업 및 음식관련문제의 중요성을 일깨워주었다. 이더블가든시티는 2015년부터 상업적인 분야까지 활동을 확장했다. 건물 옥상에서 허브와 채소를 생산하는 규모를 확대하고 있고, 이는 싱가포르가 이더블가든시티로 변화할 수 있도록 하는데 기여하고 있다.

○ 개요

우리는 지난 4년간 싱가포르의 도시 농장관련 산업을 만드는데 주력해왔다. 그 결과 주택의 작은 발코니 정원부터 5성급 호텔 옥상까지 정원을 만들었고, 아시아의 최고 요리사 50명과 협업을 하게 되었다. 2015년 이더블가든시티의 한 팀이 큰 채소정원이 딸린 레스토랑 오픈팜커뮤니티(Open Farm Community)를 오픈했다. 이것은 싱가포르 중심가에서 도시농업의 가능성과 새로운 요리 문화를 보여주었다.

하지만, 마음 속 깊은 곳에 무엇인가가 빠져있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지난해에 우리가 한 일은 좋은 음식을 먹을 수 있을 만큼 부유한 특정 계층에게만 접근 가능 한 것이었고, 나머지 계층은 소외되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2016년부터 우리는 다시 우리의 농업 지식과 기술을 사람들에게 전달하는데 집중할 계획이다. 우리는 사람들이 먹거리를 키우는 가장 기본적인 지식을 알 권리가 있다고 생각한다. 이런 생각을 바탕으로 나는 여러분에게 "도시농부"라는 개념을 전달하고자한다. 어떻게 정신장애를 가진 성인들과 아이들에게 먹거리를 키우는 방법을 교육할 수 있는지 얘기하고자 한다.





○ Urban Farming 3.0 - Transforming cities with sustainable lifestyle

Andrew Tsui Ka | co-founder of Rooftop Republic Urban Farming

I'm a third culture kid - having grown up and worked in Hong Kong, Singapore and China, and in many ways, I call these places home. This made me appreciate different cultures and the importance of social inclusion and community building. Hence, after nearly decade of serving in the public service and in the private sector in operations and asset management, I continue to pursue my passion for social innovation and transformation, and embarked on the journey of social entrepreneurship. Since then, I have served as a project consultant at UNESCO Hong Kong Association on sustainable development education, and have been the business summary judge and trainer for the Hong Kong Social Enterprise Challenge (HKSEC) since 2011. I co-founded Rooftop Republic Urban Farming (雲耕一族) and Time To Grow (種樂樂城市耕作) with the vision in making urban farming commonplace in cities. Urban farming is not only an initiative towards a more sustainable lifestyle, but it is also a platform for city dwellers to re-establish and strengthen our relationships with the environment and our local communities. I studied Civil Engineering as my undergraduate degree (B. Eng) and recently went on to complete a postgraduate degree in business administration (EMBA). I am also currently enriching myself with organic farming practices and horticulture.



○ Synopsis

Urban farming is much more than just simply growing food in urban spaces! Zooming into Hong Kong SAR, a place where I spent my childhood and now residing; there is close to 8 million people packed into just 30% of a total of 1104km². This made the financial center one of the most densely populated city to live in. Yet, through social innovation, Hong Kong can offer huge potential to showcase how urban farming can co-exist with – and also transform – city living in a dense landscape of skyscrapers in rapidly urbanising cities in China and also the rest of the World. As urban farmers, it is our strong conviction that urban farming could bring much more to cities than just equipping city dwellers for a wonderful hobby, or opportunities to get in touch with nature, or to educate the next generation about the environment. For these in-city farming spaces are effective relational platforms that urban communities need for people to reconnect with their food sources and with one another. My team and I at Rooftop Republic Urban Farming are excited to share with you on what we have learnt from some of our projects and how we are humbly transformed through the interactions with different stakeholders and cross-sector collaborations. These include beneficiary NGOs, sponsor corporations, education institutions, volunteer farming teams, building experts, organic farming experts and so on. These projects have demonstrated that the yield of vegetables is not necessarily the only or primary objective of farming activities.

The fostering of close-knitted community bonding is just as significant, if not more. Impactful projects like these have also planted seeds in all of us, urging us all to press on with the quest to transform the city's social and physical landscapes; the same quest we share in growing this urban farming eco-system as we continue to transform idling urban spaces into productive green lungs in the city space. So let us get started and join the tribe of urban farmers. Looking forward to learn more in our interaction and you are most welcomed to visit our urban farms in Hong Kong!



○ 도시 농업 3.0 – 지속가능한 라이프스타일로 변형하는 도시

앤드류 추이(Andrew Tsui) | 옥상텃밭공화국 공동 설립자

나는 홍콩, 싱가포르, 중국에서 자라고 일한 3가지의 문화를 경험한 아이이다. 나는 이 국가들을 가정이라 부른다. 이런 경험은 다른 문화와 그 사회에 속하는 것과 공동체 형성의 중요성에 대해 감사할 수 있도록 했다. 공공기관 및 민간부문의 운영/자산관리 분야에서 일을 한 이후, 나는 사회혁신과 변형에 대한 열정으로 사회적 기업을 시작했다. 유네스코 홍콩 협회에서 지속가능한 개발 교육에 대한 프로젝트 컨설턴트로 종사했다. 그리고 2011년 이후 홍콩사회적기업챌린지(HKSEC)이란 단체에서 경영평가와 트레이너로 활동해왔다. 나는 도시 농업을 매우 흔하고 당연한 것으로 만들고자하는 비전을 가지고, 옥상텃밭공화국(Rooftop Republic Urban Farming)과 타임투그로우(Time To Grow)라는 단체를 공동 설립했다. 도시농업은 지속가능한 라이프스타일을 위한 계획일 뿐만 아니라 도시 거주민들이 환경과 지역 공동체와의 관계를 다시 형성하고 강화시킬 수 있도록 하는 발판이 될 것이다. 토목공학을 전공하고, 최근에는 경영대학원에서 학위를 마쳤다. 또한 현재 유기농업을 하는 농장에서 실습 및 원예를 통해 내 자신을 풍요롭게 하고 있다.

○ 개요

도시농업은 도시 공간에서 단순히 음식을 키우는 것보다 훨씬 큰 의미를 갖고 있다. 내가 대부분의 어린 시절을 보내고, 현재도 거주하고 있는 홍콩특별행정구를 들여다보면, 전체 1104km² 면적의 30%에 800만 명이 몰려 살고 있다. 홍콩금융센터는 도시에서 인구 밀도가 가장 높은 곳 중 하나다. 사회 혁신을 통해 홍콩은 중국과 세계 다른 나라의 초고층 건물이 뿔뿔히 떨어져서 풍경 등 급격한 도시화가 진행 되는 상황 속에서 도시 농업이 어떻게 도시와 공존하고 도시에 변화를 줄 수 있는지에 대해 큰 잠재력을 보여줄 수 있다. 나는 도시 농부로서 도시 농업은 도시에서 단순히 도시 거주자들이 놀라운 취미를 갖는 것, 자연과 접할 기회를 얻는 것 또는 환경에 대해 다음세대를 교육하는 것 등의 의미보다 훨씬 더 많은 것들을 가져다줄 것이라고 확신할 수 있다. 왜냐하면 이러한 도시 안의 농업 공간은 사람들이 상호 연결되어 그들의 음식 재료를 서로 공유할 수 있는 효과적인 관계형 플랫폼이기 때문이다. 옥상텃밭공화국(Rooftop Republic Urban Farming)에서 나와 우리 팀은 프로젝트를 통해 배운 내용과 어떻게 우리가 다른 이해관계자들 및 다른 부문과 상호작용을 통해 겸손하게 변화되었는지를 여러분과 공유하는 것이 매우 설렌다. 관계자들 중에는 비영리법인, 후원 기업, 교육 기관, 자원봉사팀, 건축 전문가, 유기농 농업 전문가 등이 있다. 이러한 프로젝트들은 단지 작물 생산이 농업 활동을 위한 목적만은 아니라는 것을 증명했다. 이 프로젝트 들은 매우 유

의미할 정도로 지역 공동체의 결속력을 강화시키고 촉진시켰다. 이렇게 큰 영향력이 있는 프로젝트들은 우리 모두에게 도시의 사회적 그리고 물리적 환경을 변화시키기 위한 연구를 진척시켜줄 작은 씨앗을 심겨주었다. 도시의 미사용 공간들을 생산적인 초록색 공간으로 탈바꿈하려고 노력할 때 도시농업의 생태계가 자란다는 것을 입증시켜줄 것이다. 따라서 도시농부 그룹에 함께 참여하고 시작해보자. 우리는 이러한 도시 농업 활동을 통한 상호작용으로 더 많은 것들을 배울 것이고, 홍콩의 도시 농장 방문을 적극 환영한다.





○ Urban Agriculture in Australia

Green Dean | Urban Farmer and Permaculturist based in Brisbane, Queensland, Australia.

Dean supports homes and communities with education, design and consulting on urban farming, permaculture and food sustainability. He comes from a rural farming background, but now strongly focuses on urban farming – bringing food growing back into the towns and cities, where it has traditionally always been in sustainable cultures.

Dean founded and runs several related local, national and international groups and projects, and is a popular presenter at expos, events and workshops. He also supports national and international followers through Facebook groups and his blog.

Dean is the founder of:

SEQUF (Southeast Queensland Urban Farmers)

AUFF (Australian Urban Farming Family)

WUFF (World Urban Farming Family)

HOGPUFF (Hastings Organic Gardening, Permaculture and Urban Farming Friends) in NSW

and is Co-founder of WUFD (World Urban Farmers Day - May 22)

○ Synopsis

Green Dean's Crop Swaps

Dean founded the Crop Swap movement in Brisbane 5 years ago, and now many Crop Swaps are operating around Brisbane, Queensland and Australia.

Crop Swaps bring like-minded urban farmers together to swap, share, give away, talk and learn about fresh organic home grown plants and trees, animals, homemade food and recyclable products. Dean's Crop Swaps only have 1 rule: no money can be exchanged for produce. Everything must be swapped or freely shared.

The KFC Project

Dean founded The KFC Project 4 years ago to rescue and rehome 'battery hens' in cages – there are 12 million caged hens in Australia every year!

Dean rescues (buys) chickens from caged and free range (inside buildings) farms, and rehomes them with families and urban farmers who want to keep chickens for eggs and other benefits. So far the project has saved over 5000 chickens, and some ducks and guinea pigs.

DEAN'S PRESENTATION

Dean's presentation will tell a story. The story of a unique and beautiful country, with every type of ecosystem and habitat in the world. With so many amazing native animals. With a unique spirit and sense of humour.

But also a dark story. The story of how destructive and unsustainable farming and history in Australia has damaged

Australian soil, water, native animals and food. This situation is driving urban people in towns and cities to question farming and food, and grow more of their own fresh organic food.

Many of the traditional farming activities in the country are now being adopted by urban 'farmers' in cities to grow food, keep animals and feed people in new ways. Distrust and suspicion of many rural foods has pushed urban people back to growing organic food, keep chickens and other animals for meat, eggs and other products, and start to question where our food comes from and how it is grown.

Dean's presentation will show the urban farming and food revolution exploding in Australia now. The markets, community gardens, urban farms in public parks, schools, universities, carparks and rooftops. The rise in hydroponics, aquaponics and aquaculture. The huge interest in preserving and fermenting foods, including kimchi. The move towards commercial urban farming for income by many young urban farmers. And the organic integrity food revolution sweeping across Australia in every village, town and city.



○ 호주의 도시 농업

그린 딘(Green Dean) | 호주의 브리즈번, 퀸즈랜드에 기반을 둔 도시농부이자 영속농업전문가

교육, 도시농업에 대한 디자인과 컨설팅, 영속농업과 음식의 지속가능성에 대해 공동체와 가정을 지원한다. 농촌의 농업 경험을 갖고 있고, 현재는 도시와 시내에서 작물을 키우는 지속가능한 문화로서의 도시농업에 큰 관심을 갖고 있다. 지역, 국가, 국제적인 그룹을 운영하고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 그리고 전시회, 이벤트, 워크숍 등에서 인기 있는 발표자이다. 또한 페이스북 그룹, 블로그를 통해 다양한 팔로워들과 교류하고 있다.

퀸즈랜드 남동부 도시농부들(SEQUF), 호주 도시농업 패밀리(AUFF), 세계 도시농업 패밀리(WUFF), 뉴사우스웨일즈의 헤이스팅스 유기농 가드닝, 영속농업 및 도시농업 친구들(HOGPUFF)의 설립자이자, 세계 도시농부의 날(5월 22일)의 공동창립자이다.

○ 개요

그린 딘(Green Dean)의 농작물 교환

5년 전 브리즈번에서 농작물 교환 운동을 시작했고, 지금은 브리즈번을 비롯해 퀸즈랜드 및 호주 전역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농작물 교환은 마음이 맞는 도시농부들이 가정에서 키운 신선한 유기농 식물, 나무, 동물, 홈메이드 음식, 재활용 가능한 물품을 교환하고, 공유하고, 기부하고, 그것들에 대해 서로 대화하고 배우게 한다. 딘의 농작물 교환은 1가지 규칙만 존재한다. 그 규칙은 생산물 교환에 있어 돈이 필요 없다는 것과 모든 물품은 교환하거나 무료로 공유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KFC 프로젝트

4년 전 '공장식 양계장의 닭들'을 구조하고 새 집으로 보내기 위한 KFC 프로젝트를 설립했다. 호주에는 매년 우리에 갇힌 1천2백만의 닭이 있다. 딘은 닭들을 우리 및 건물 안에 놓아기르는 농장으로부터 구조(구매)해서, 새로운 가족 혹은 달걀이나 닭이 필요한 도시농부들에게 보낸다. 지금까지 5천마리 이상의 닭을 구했고, 몇몇 오리나 기니피그도 구했다.

나는 하나의 이야기를 들려줄 것이다. 전 세계 모든 종류의 생태계 및 서식지가 있는 독특하고 아름다운 국가의 이야기이다. 그곳에는 놀라운 야생 동물들이 있고, 독특한 정신과 유머가 있다. 그러나 어두운 내용도 있다. 그것은 호주의 파괴적이고 지속불가능한 농업과 역사가 호주의 토양, 물, 야생 동물과 음식에 얼마나 큰 피해를 주었는지에 관한 내용이다. 이런 상황은 도시에 사는 사람들에게 농업과 음식 그리고 그들 자신의 신선한 유기농 음식에 대한 의문을 갖게 한다. 도시 '농부'들은 새로운 방식의 먹거리를 키우고 동물을 보호하는데 그 국가의 전통적인 농업 활동을 적용하고 있다. 많은 농촌 음식들에 대한 불신과 의심은 도시 사람들이 직접 유기농 먹거리를 재배하고, 닭과 고기, 달걀, 생산품을 얻기 위한 동물들을 키우게 했다. 그리고 우리의 음식은 어디서 나며, 어떻게 자라는지에 대한 의문을 갖게 만들었다.

딘은 현재 호주에서 각광받고 있는 도시 농업과 음식 혁명을 보여줄 것이다. 시장(markets), 커뮤니티가든, 공원의 도시농장, 학교, 대학, 주차장, 옥상, 수경재배의 등장, 김치를 포함하여 음식을 보존하고 발효하는 것, 젊은 농부들의 수입을 얻기 위한 상업용 도시농업에 대한 움직임, 그리고 호주의 모든 마을, 시내 및 도시를 활살고 있는 유기농 착한 음식에 대한 것들이다.





○ 농부와 요리사가 만나는 장터

박정자 | 도시농부

2007년부터 여성환경연대 학교 텃밭강사를 시작으로 병원 암환우텃밭 운영, 문래도시텃밭 조성 및 멘토로 활동해왔다. 2012년부터 흥대텃밭다리, 합정대룩텃밭을 만드는 프로젝트에 함께해 현재까지 텃밭멘토로 활동중이다. 멘토로서 청년들과 함께 농사를 체험하고 교육하는 농부학교를 진행하고, 시농제, 하지감자축제, 김장잔치 등의 텃밭을 즐기는 문화활동을 기획하고 운영한다. 또한, 로컬브랜드 MIM을 조직하고 도시전업농 실험으로 도시농사의 가능성을 실험해왔다. 2012년부터 현재까지 도시농부시장 마르쉐@에 참여하여 직접 재배한 채소와 가공품을 판매하고 있으며, 현재 '자란다'팀으로 출점하며, 도시농부로서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가는 중이다. 2014년부터 (구)마포석유비축기지내 비빌기지 키친팜 조성에 참여하여 요즘은 열심히 씨앗을 뿌리며 농사활동으로 바쁘게 보내고 있다.

하미연 | 아부레이수나* 대표, 한식 요리장이, 텃밭 요리사

*아부레이수나 : '서두르지도 게으르지도 않게' 라는 뜻의 경상도 예천의 모내기 민요. 지역을 다니며 농부들의 식재료로 음식을 개발하고 사라져 가는 마을의 전통적인 음식 문화와 식재료를 기록, 현대적으로 개발하는 일을 하고 있다. 도시시장 마르쉐에서 (아부레이수나의 한평마을)이라는 주제로 지역 농부와 함께 다양한 마을의 음식문화와 농부들의 식재료를 소개하고 있다. 도시 텃밭(다리)에서 도시 농부와 함께 요리사가 차리는 팜투테이블, 당수동 시민농장에서 텃밭음식, 텃밭 미각교육등 다양한 텃밭음식 프로그램을 통해 도시농부를 만나고 있다. 현재 농촌진흥청과 함께 절기 텃밭음식 개발 프로젝트, 농업기술센터에서의 지역음식개발 강의, 뉴욕사찰음식의 날 요리진행 및 (행복이 가득한 집)을 통해 마을음식 및 절기음식을 소개하고 있다.



○ 개요

〈마르쉐와 함께 크는 요리사 – 아부레이수나 하미연〉

1. 마르쉐@과 도시농부로 요리의 길을 시작하다.
 - 아트디렉터에서 요리사가 되기까지.
 - 마르쉐@ 첫 장터 출점과 흥대 다리텃밭과의 만남
2. 마르쉐@과 도시농업 속에서 농부와 요리사와의 관계, 씨앗에서 밥상 까지를 알아가다.
 - 마르쉐@의 농부와와의 만남, 다양한 농부 워크샵, 배움터, 도시농부학교에서 농부와와의 만남.
 - 도시농부와와의 Farm to table, 지역농부에게 찾아가는 도시농부 워크샵, 지역의 농부가 찾아오는 도시농부 워크샵
3. 도시농업, 상자텃밭에서 집 앞 3.3평 작은 나의 텃밭을 가꾸게 되다
4. 마을음식, 지역 식재료, 지역 농부들과의 협업으로
 - 마르쉐@에서 한평마을 시리즈 이야기

〈마르쉐와 함께 크는 농부 – 박정자〉

1. 도시농부로 철들다.
 - 나를 행복하게 하는 일을 찾아 도시농부가 되다.
2. 마르쉐@에서 배운다.
 - 생산자와 소비자가 얼굴을 맞대고 대화하는 장터.
 - 마르쉐@의 농부, 요리사를 통해 성장하다.
3. 마르쉐@에서 '자란다'
 - 도시농부 브랜드, '자란다'
 - 도시농부로서 지속가능한 Lifestyle

○ Marketplace where Farmers and Chefs Meet

Park, Jeong Ja/Urban Farmer

Starting with the school lecture for the Women's Environmental Network, she has been involved in a wide range of activities such as the management of the farm for the cancer patients at hospitals, the creation of Munrae urban farm and mentoring programs. Since 2012, she has been involved a range of mentoring programs including Hongik University Farm Bridge, Hapjeong Continent Farm, etc. She experiences farming and runs farmers school with the young, and plans and manages cultural events such as Sinong Ceremony, Haji Potato Festival, Kimjang Festival and so on. Additionally, she organized a local brand MIM to test the possibility of full-time urban farming. Since 2012, she has been selling the vegetables and processed goods through an urban farmers' market 'Marche' and created a new value as an urban farmer by launching 'Jarnada'. Since 2014, she participated in the construction of Bibil KIJEE Kitchen Farm inside the former Mapo Petroleum Storage Site and currently is busy doing sowing seeds.



Ha, Mi Yeong/Representative of Abuleisuna, Korean chef, Farm chef

*Abuleisuna: A folk song sung for the rice planting in Geyongsan-do. I means "Take it easy but don't be idle"

She travels across the nation to develop foods using the food materials of the local farmers and keep the record of the traditional food culture and food materials that are disappearing so as to develop them in a modern way. Together with the local farmers, she introduces the food cultures and food materials of different villages at an urban market 'Marche' under the theme of "Hanpyeong Village of Abuleisuna". She meets with urban farmers through a range of farm food programs including farm2table set by the chef with the urban farmers at farm gourmet education. Currently, she introduces village foods and seasonal foods through the seasonal farm food development project with the Rural Development Administration, the lectures on the development of local foods, the management of the event on "Day of NY Temple Foods" and "a House that is full of happiness".

○ Synopsis

Chefs growing up with Marche – Ha, Miyeon/Abuleisuna

1. Starting on the path of cooking as urban farmer with Marche@.
 - From an art director to a chef
 - Starting of the first Marche@ marketplace and the encounter with Hongdae Dari Garden
2. Marche@ and the relationship between farmer and chef in urban agriculture, learning from the seed to dinner table.
 - Marche@'s encounter with farmers, various farmers workshop, learning place, encounter with farmers at urban farmer's school
 - Farm to table with urban farmers, urban farmer's visiting workshop to local farmers, local farmer's visiting workshop to urban farmers, etc.
3. Urban agriculture, creating my own small kitchen garden in a boxed garden
4. Story of Hanpyeong Village series at Marche@ through the collaboration of village's food, local food ingredients, and local farmers

Chefs growing up with Marche – Park, Jeongja

1. Maturing as an urban farmer
 - Pursuing what makes me happy and becoming an urban farmer
2. Learning from Marche@
 - The marketplace where producers and consumers communicate face to face
 - Marche@'s farmers grow up through chefs
3. 'Growing up' at Marche@
 - Urban farmer brand, 'JARANDA'
 - Sustainable lifestyle as urban farmers









